

김 태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문학과 어린이의 성장 : E. B. White의
Charlotte's Web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영 립

논문개요

어린이에 대한 관념은 아동기를 독립된 시기로 인식하기 시작한 17세기 이래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미숙한 존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미숙한 존재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의 바탕에는 아동기를 고유한 세계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시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 인식하여 어린이들을 기존의 성인들이 닦아놓은 사회 속으로 조용히 편입될 수 있도록 훈육시키고자하는 성인들의 지배의식이 깔려있다. 아동문학 작가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어린이 상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전달하는데 일조한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나름대로의 완전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아동기의 특성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한 어린이 또는 선한 어린이라는 식으로 어린이를 한가지 이미지로 한정시키는 것은 어린이의 다양성과 성장을 무시한 것으로 진정한 어린이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문학은 아동에 대한 관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미숙한 존재로 어린이를 간주하거나 왜곡된 어린이 상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화이트(E. B. White)는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에서 아동이란 과연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은 문명보다 우수한 가치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세계와 교류하는 어린이인 편(Fern)의 능력은 문명사회에 길들어서 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른들에 비해 우월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편은 영

원히 어린이로 머무르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녀는 헛간사회(barnyard)라는 매개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간다. 헛간사회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동물들이 말을 하고 거미의 사랑으로 새끼돼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헛간사회는 리얼리즘의 규칙을 따르는 인간세상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판타지의 작은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간 세상에 속한 어린이인 편은 울타리너머의 헛간사회를 바라보며 헛간사회의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하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 이러한 헛간사회는 편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그녀만의 작은 세상이며 소우주이다. 편과 헛간사회는 어린이 독자와 아동문학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될 수 있다. 편이 헛간이라는 작은 세상을 통해 그녀가 속한 현실세상을 알아가듯이 어린이 독자들은 아동문학이라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앞에 펼쳐진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간다. 헛간의 한가운데에는 샬롯(Charlotte)의 거미줄이 있다. 샬롯의 거미줄은 삶과 죽음, 사랑과 우정 등 삶의 본질적 문제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미줄처럼 얽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거미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편은 성장한다. 판타지의 세계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샬롯의 거미줄은 아동문학에 감추어진 메시지와 같다. 어린이 독자들은 독서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습득해 가는 것이다. 헛간사회를 통한 편이 성장을 아동문학을 통한 어린이의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헛간사회에는 인생의 복잡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아동문학의 기술(technique)과 책 속의 어린이와 책 밖의 어린이, 작가사이의 관계 등, 아동문학과 어린이 그리고 성장사이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아동문학과 어린이(이론적 배경)	
1. 역사 속의 어린이와 아동문학	7
2. 아동문학 연구의 논점들	16
III. 『샬롯의 거미줄』 (<i>Charlotte's Web</i>)에 나타난 어린이의 성장	
1. E. B. White와 아동문학	24
2. 편(Fern)	33
3. 헛간사회(Barnyard)	52
IV. 결 론	73
참고문헌	79
Abstract	

I. 서론

어린이는 책과 함께 성장한다. 좋은 책은 어린이의 훌륭한 친구이자, 교사이자, 성장의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 좋은 책이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습득하게 해 준다던가, 자연 관찰력을 심어준다던가, 사회적 예절을 가르쳐 준다던가, 도덕심을 길러준다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심어준다던가 하는 등등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 책들은 어린이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내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문학만큼 도움이 되는 책은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읽는 동화 속에는 환상과 모험과 꿈, 사랑, 슬픔, 행복, 기쁨 등 어린이가 겪는 이상과 현실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에 의하면 옛이야기나 고전을 소재로 한 동화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어린이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이러한 동화를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내면적 억압에서 해방되며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갈등의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한다(17).

아동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Eric Erickson)은 “6-12세 단계를 자아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고, 이때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자연 38, 재인용). 6-12세에 거치는 시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아동기¹⁾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아동들이 접하는 아동문학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베텔하임은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대상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5,6세~14,15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서구에서 아동은 5,6세~18세(대학교 1학년)로 아동문학 대상에 청소년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더 나아가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와 보호자의 영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유산인데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유산은 문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14). 어린이의 성장과 아동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문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동문학²⁾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문학 연구를 살펴볼 때, 순수한 문학자체로서의 연구보다는 외국어 교육도구로서의 아동문학의 이용 가치를 분석한다던가, 아동문학을 이용한 교육 방법연구 등 교육적 관점에 치우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모색하는 아동문학 연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문학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문제도 한 가지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동문학은 정의(definition)와 정체성(identity)의 문제에서부터 명확히 정의 내리거나 특징짓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함은 비평가들이나 연구가들을 해답 없는 논쟁의 복잡성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피터 헌트(Peter Hunt)에 의하면 아동문학 연구는 문학(literature), 어린이(children), 그리고 성인비평가의 비평(adult critic)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헌트가 제시하는 그 이유는 첫째로, 아동과 아동기(childhood)는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관한 정의를 짜 맞춰야(construct)만 한다는 데에 있으며 둘째로,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일반의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15). 아동문학은 성인문학과는 달

2) 필자가 본 논문에서 언급하거나 연구대상으로 삼는 아동문학은 영어로 쓰여지거나 영어로 번역된 영문학의 일부로서의 아동문학이다.

리 처음부터 ‘아동’이라는 범주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아동문학은 ‘문학’이면서 그 주체인 ‘아동’의 속성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란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고정불변의 개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 역시 아동문학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논제에서부터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문학의 연구는 시작에서부터 순수하고 분명할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이면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모호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아동문학 연구의 근본적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문학 연구 또는 아동문학 비평은 어린이에게 ‘좋은 책’은 어떤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사실 이 문제는 아동문학이 등장한 이래로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며,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동문학에 있어서 ‘좋은 책’이란 어린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책, 달리 말하면 ‘유익한 책’과 동의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아동문학 작품들은 ‘좋은 책’과 ‘나쁜 책’으로 선별되어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그 타당성과 아동문학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엘더슨(J. C. Alderson)과 쇼트(M. H. Short)같은 비평가는 독자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선험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독서의 목적에 의해서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독자의 다양한 해석에 의하여 구축되어지는 가변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72). 즉 서로 다른 텍스트 일지라도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 책을 단순히 ‘유익한 책’과 ‘유해한 책’으로 구분하

는 것은 “어린이의 텍스트 이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어린이를 “획일화“ 내지는 “단순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클린 로즈(Jacqueline Rose)도 이에 대해 어린이 문학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어린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어린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와 언어가 속한 여러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10). 어린이를 획일화시키고 단순화하는 것은 쉽게 잡히지 않는 어린이의 이미지를 “알만한”(“knowable“, Rose 10) 존재로 규정시켜 놓고 그들을 훈육(discipline)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지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인들의 지배의식은 아동문학에 있어서 작가(성인)와 독자(아동)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작가와 독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화적 상상력’을 억압하고 문학의 매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환희 6). 또한 좋고 나쁨에 대한 구별은 그 자체가 성인이 이미 획득한 선/악의 가치평가 기준을 어린이 문학에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동문학은 ‘좋은 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특성을 또한 갖고 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은 시작부터가 교육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동문학 연구를 일반문학 비평과 구분하는 특성도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마리아 니콜라예바 15). 따라서 좋은 책에 관한 논의에서 유의할 점은 ‘좋은 책이란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지 아동문학에서 좋은 책 또는 교육적 관점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좋은 책만큼 어린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셸 란즈버그(Michele Lansberg)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 good books can do so much for children. At their best, they expand horizons and instil in children a sense of the wonderful complexity of life No other pastime available to children is so conducive to empathy and the enlargement of human sympathies. No other pleasure can so richly furnish a child's mind with the symbols, patterns, depths, and possibilities of civilization. (34)

... 좋은 책은 어린이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최선의 경우, 좋은 책은 어린이의 시야를 넓혀주며 삶의 놀랄만한 복잡성에 관한 감각을 어린이에게 서서히 주입시켜 준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좋은 책만큼 감정을 이입시켜주고 인간적인 동정심을 확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오락거리는 없다. 어떠한 즐거움도 좋은 책만큼 어린이의 마음을 상징과 모본과 깊이와 교화의 가능성으로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위와 같은 램즈버그의 주장은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아동문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인간성의 배양이 좋은 아동문학 작품을 판가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램즈버그의 '좋은 아동문학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엘윈 브룩스 화이트(Elwyn Brooks White)의 『샬롯의 거미줄』 (*Charlotte's Web*)을 분석 비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샬롯의 거미줄』은 죽음을 포함한 삶의 실존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이 알지 못했던 삶의 어두운 부분들에 시선을 돌리고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하는 삶의 실상을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삶의 진리를 어린 주인공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다룸으로써 어린이 독자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주인공들의 성장과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깨달아 가도록 유도한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을 현실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린이의 성장에 미치는 아동문학과 아동문학 작가의 역할을 상

정과 암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샬롯의 거미줄』을 중심으로 아동문학과 어린이주인공, 어린이 독자 사이의 성장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작품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 아동문학의 역사와 아동문학 연구의 논점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동문학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하였으며 이어지는 제3장에서 『샬롯의 거미줄』을 중심으로 아동문학과 어린이의 성장에 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로 한다.

Ⅱ. 아동문학과 어린이(이론적 배경)

1. 역사 속의 어린이와 아동문학

오늘날에는 ‘어린이 책’(children’s books)이 없는 책 산업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어린이 책은 출판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아동기’(childhood) 또한 사회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바, 성인의 행동은 아동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설명되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어린이 책의 출현과 아동기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늘날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만을 위한 책, 특히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출판이 사회현상으로 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로써 19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총체적으로 어린이 책 시장이 팽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havit 3-4).

어린이 책과 아동문학의 역사에 관한 아동문학연구가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5-16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예의범절 지도서’(manner-books)라고 하겠다. 이것은 순수한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양서로서 현대적 의미의 문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른들과 공유하지 않는 아동만을 위한 아동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논한다면 아동문학의 출판은 18세기에 들어서 영국 출판업자인 메리 쿠퍼(Mary Cooper)와 존 뉴베리(John Newbery)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하여 출판된 영어로 씌어진 어

린이 책들은 영국에서 미국과 인도를 거쳐 프랑스, 독일 등지로 전파되었다(Hunt 5-6). 그 이전시대에도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traditional stories)이나 “종교적”(religion) 요소가 강한 이야기들로써 어린이뿐만이 아닌 어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겨냥한 이야기였다(Ray 654). 17세기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어린이만을 위해 만들어진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초기의 아동서적은 전통적 자료나 교훈적인 메시지에 의존한 것으로써 문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자 현대적 형식의 아동문학이 등장한 것은 주로 19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현상이었다(Hunt 6).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형식의 아동문학도 내용은 주로 도덕심을 심어준다던가 적절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종교적 감각을 고취시키는 등의 교훈적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어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희와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의 요구가 아동문학에 반영되면서 어린이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은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Westin 22).

그렇다면 어린이 책과 아동 문학은 왜 그렇게 느지막하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존 로우 타운젠드(John Rowe Townsend)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책은 ‘그들만을 위한 책을 원하는 어린이’라는 존재의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책이 있기 전에 성인의 축소물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한 욕구와 흥미를 가진 존재로써의 어린이가 있어야만 하였다. (17)

필리프 아리에(Philippe Ariès)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이전에는 ‘아동

기'(childhood)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17세기 이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어린이'라는 관념은 나이 어린 인간만이 아니라 주인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 예컨대 종복, 직공, 하급군인 등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나이 어린 어린이는 단지 "축소된 어른"(miniature men and women)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아동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머니나 유모가 온종일 돌봐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곧 어른 사회에 편입되어 들어갔다. 어린이들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성인들과 섞여서 성인처럼 행동해야 했다(78-113). 아동기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짧은 수명이라는 당시 사회의 배경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의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아동기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매우 "연약한"(fragile) 시기였으므로 아동기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빨리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진입해야만 한다고 여겨졌다(Shavit 5-6). 이처럼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독립적 단계로서의 아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따라서 어린이만의 특별한 욕구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한 책이나 문학도 필요 없었다.

아리에는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를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써 그는 16세기 후반부터 '축소된 어른'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회화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둘째, 17세기에 이르러 어른들의 옷과는 다른 아이들만의 옷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한다. 아리에는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는 아동기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회화 속 어린이의 등장이나 어린이용 옷의 등장은 모두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발생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다(89-130).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아동기의 속성이란 "순수"(innocence)와 "귀여움"(sweetness)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천사적인 자질들, 예를 들면 "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증오를 모르는 마음"(Shavit 6) 등이었다. 새로이 인식하게 된 어린이의 속성은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순수함과 귀여움이라는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가정으로 보급되면서 어린이는 성인들의 휴식과 즐거움(amusement)의 근원이 되었다. 어린 자녀들은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작은 강아지나 원숭이”(아리에 234)같이 취급되어졌으며 응석받이로 자라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덕주의자들과 교육가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어린이를 응석받이로 키우는 것을 자제할 것과 어린이는 성인들의 노리개가 아닌 “성스러운” 영성을 가진 존재(spiritual well being)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에 가깝게”(close to god) 창조된 본래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하여 성인들의 타락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havit 6, 재인용). 이에 의하여 어린이를 “영적 존재”(spiritual well being)로 인식하는 어린이에 대한 두 번째의 관념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어린이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의 본래의 영성을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어린이의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어린이의 이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교육적 내용을 담은 책”(books issued primarily as pedagogic vehicles)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의하여 “어린이 책”(children’s book)이 탄생하게 되었다 (Shavit 7, 재인용).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 의하여 아동문학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7세기에 시작된 아동기에 대한 관념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성인들의 어린이 훈육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요구”(need)와 함께 “어른들의 지도”(instruction)가 아동기를 지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에 쓰여진 작품들을 통하여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어

린이 책 또는 어린이 문학의 내용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 최초의 책 중의 하나로 페리 노들먼(Perry Nodelman)이 그의 저서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임스 제인웨이(James Janeway)의 『어린이를 위한 선물: 개종, 그리고 몇몇 어린이들의 성스럽고 모범적인 삶과 기쁨에 찬 죽음에 관한 정확한 기록』 (*Token for Children : Being an Exact Account of the Conversion, Holy and Exemplary Lives and Joyful Deaths of Several Young Children*)을 살펴보자. 1692년에 발행된 이 책에는 순진 무구하고 성스러운 어린이의 본성을 타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당시 어린이 책의 창작의도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라 홀릭이라는 소녀가 8살 때 설교를 들은 뒤 자신을 예수에게 바치고 14살에 심각한 병에 걸렸으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쁘게 숨을 거둔다는 것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스러운 금언들이 가득 차 있었고, 앓는 동안 내내 입에 올린 이야기는 자신의 영혼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한 것뿐이었다(노들먼 144, 재인용)”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텍스트는 요즘의 시각에서 볼 때 설교적이고 필요이상으로 억압적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어린이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17세기에 쓰여진 『빨간모자』 (*Little Red Riding Hood*)와 19세기에 개정된 『작은 빨간모자』 (*Little Red Cap*)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전 동화였다가 1697년에 페로(Perrault)에 의해 출간된 『빨간 모자』 (*Little Red Riding Hood*)는 1823년에 그림 형제(Brothers Grimm)에 의해 『작은 빨간 모자』 (*Little Red Cap*)로 개정되었는데 이 두 작품사이에는 어조와 결말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어조에 있어서 페로의 작품은 성인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설적으로 어린이에게 도덕적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그림형제의 것은 어린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해가고 있으며 짧고 단순한 문장과 어린이의 시각이 반영된 담화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또한 결말에서 페로는 늑대가 빨간 모자를 삼키고 끝이 난다는 비극적 결말을 맺고 있는 반면, 그림형제는 두 가지의 양자 택일적 결말을 제시한다. 하나는 위기에서 벗어난 빨간 모자가 다시 할머니에게 케이크를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늑대가 바른(도덕적인)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지만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어른들의 지도를 따라야한다는 교훈을 얻은 빨간모자는 할머니에게 먼저 달려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헤치러 간 늑대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은 할머니와 빨간모자에 의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지붕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물이 가득 찬 물통으로 미끄러져 빠진다. 그 이야기는 “그리하여 빨간 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오는 동안 아무도 그 소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로 끝난다. 그림 형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의 결말은 빨간모자가 늑대에게 먹혔으나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갈라서 빨간모자와 할머니를 구출한다는 결말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판은 모두 어른에 의해서 빨간모자가 구출된다는 해피엔딩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페로의 이야기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말로 끝이 나게 함으로써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른 어린이를 조심스럽게 위협하는 경고성을 띠고 있지만, 그림형제의 이야기는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를 벌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지도 받을 기회’를 첨가시키고 있다. 즉 17세기 판과 비교할 때 19세기 판에는 지도(instruction)의 요소가 첨가되어있다. 이와 같이 17세기에 발견된 어린이의 특별한 욕구는 19세기에 이르러 어른들의 강한 감독과 훈육에 의하여 그러한 욕구들이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지도와 훈육의 필요성은 ‘교훈적 효과’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아동문학을 교육적 도구로 이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문학은 당시 사회의 아동기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힘의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아동문학의 역사는 성인들이 아동문학의 제작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가장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형태가 바로 “검열”(censorship)이다. 헛트는 그의 저서 『아동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Children's Literature*)에서 검열의 역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검열은 종교와 정치, 교육적인 의도와 맞물려서 어린이 책의 출판 전후단계에 걸쳐 아동문학을 통제해왔다.”(6)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우익(right-wing)과 기독교 원칙주의자들에 의해서 『오즈의 마법사』 (*The Wizard of Oz*)와 『안네 프랑크의 일기』 (*The Diary of Anne Frank*)가 출판금지 되었던 일이라든가, 나찌 독일(Nazi Germany) 하에서 『에밀과 탐정』 (*Emil and the Detectives*)의 출판을 금지했던 일 등은 이러한 검열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정치와 종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최근사회에서도 검열은 이루어지고 있다. 검열은 어린이를 단순하고, 감수성이 강하고 성이나 인종적 이슈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화하는 성인들의 판단에 기본 뿌리를 두고 있다. 1975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던 주디 블룸(Judy Blume)³⁾의 『영원히』 (*Forever*)가 청소년들의 성적 관계를 묘사했다는

3) '검열에 반대하는 전미 작가연합(NCAC)'의 회원인 주디 블룸은 미국의 YA(Young Adult) 작가중의 한 사람으로서 주로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장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성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녀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7천만권 이상이 팔렸으며 그녀는 '여학생 성장소설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저 마가렛이에요』, 『13살 토니의 비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책들이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다. 그녀는 최근에

이유로 금기시되었던 일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의 한 예이다. 하지만 어린이가 그들이 읽는 텍스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는 많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Hunt 6-7).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책들이 오늘날까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책으로 살아남았다는 것과 주디 블룸같은 작가의 책이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책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아동문학세계에는 성인의 검열을 능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아동문학과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에도 아동문학에 성인들의 검열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전시대와 비교할 때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문학작품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허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위험한 문학으로 여겨졌던 판타지 문학이 요즘의 아동문학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주제와 소재 면에 있어서도 현대 아동문학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생생한 성적 묘사'(graphic sex)한 가지 뿐(Babbit 157)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동문학의 폭은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문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옛날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⁴⁾는 오늘날 아동문학의 전

검열 대상에 올랐던 YA작가 12인의 무삭제 원고와 검열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담은 단편집 『내가 결코 있어선 안되었던 곳』 (*Places I Never Meant To Be*) 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조윤신; http://www.bookoo.co.kr/review/22/front/foreign_info.htm)

- 4)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는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도 『오이대왕』 『프란츠 이야기』 『새로운 피노키오』 등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다. 안데르센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으며, 올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했다. 필자가 본 논문에 인용한 부분은 1985

반적 현황을 점검하면서 “아동문학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아동문학의 평가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아동문학의 평가는 ‘좋은’ 책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다. 오늘날에는 ‘좋은’ 책이라는 것에 대해 옛날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학’이기를 거의 기대하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어린이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거나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책보다는 단순히 어린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준다거나 알팍한 흥미만을 충족시키는 책들이 어린이 책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220-221)라고 이야기한다. ‘문학’보다는 ‘좋은’ 책이 어린이 책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러한 경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풍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미 수세기전에 아동기가 독립된 시기로써 인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진심으로 어린이를 그 나름대로의 완전한 세상을 가진 고유한 단계에 서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과도기적 존재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를 훈육해야 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답해 주며, 더 넓은 세상으로 어린이의 사고를 이끄는 책이 아닌 단순한 생활 습관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책들, 말하자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책들이나 깊은 생각과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보다는 감각적 흥미만을 충족시키는 책들이 인기를 끌게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어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류의 어린이 책의 성공이 증명해준다고

년에 열린 오스트리아 책 주간 개막식에서 그녀가 강연한 내용으로 『창비 어린이』 창간호에 실려있다.

말할 수 있다. '미성숙'한 존재로 어린이를 규정하는 관점은 아동기를 독립된 고유한 시기로 보고 어린이의 마음에 진정으로 대화를 걸기 위한 시도를 차단한다. 역사를 통하여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되는 한 아동문학은 계속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가능케 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문학의 보다 나은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문학 연구의 논점들

아동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동문학은 어떠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으며 아동문학 연구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장에서는 오늘날까지 아동문학 연구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몇 가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살펴볼 이슈로는 첫째, 전통적인 이슈인 교훈성과 즐거움 사이의 논쟁, 둘째 아동문학과 어린이독자에 관한 논쟁, 셋째 아동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다. 이들은 모두 어느 한가지의 해답으로 정착되거나 보편화된 지식으로 도출되지 못한 이슈들로써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비평가들이나 아동문학가들에 의하여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러한 이슈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시점의 아동문학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에 있다.

첫째, 아동문학은 전통적으로 교훈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즐거움을 강조하

는 입장 사이에서 표류해왔다. 사라 필딩(Sarah Feilding, 1749)이나 프레드 잉그리스(Fred Inglis, 1981)같은 비평가들은 아동문학은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릭비(Elizabeth Rigby, 1844)같은 비평가는 교훈성보다는 즐거움을 앞세운다(Sarland 40). 아동문학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동문학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도덕적 영향을 중시한다. 즉, 문학 자체보다는 독서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독서의 효용성(the true use of reading)이란 독자를 보다 현명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보며,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도덕적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을 선별해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릭비는 소위 말하는 나쁜 책(offensive books)은 오히려 이른 시기에 읽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며 정면으로 반박한다(Sarland 40, 재인용).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18, 19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아동문학의 즐거움을 부각시키는 이론들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노들먼은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에서 책의 제목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바대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른,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유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독서를 하며 가끔은 유익함 때문에 독서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 독서가 우리를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에서 즐거움을 찾는다(57)”라고 주장한다. 셰일라 에고프(Sheila Egoff) 또한 어린이 문학의 목적을 즐거움에 둘 것을 제의한다.

May I suggest that the aim of children's writing be delight not edification; that its attributes be the eternal childlike qualities of wonder; simplicity, laughter and warmth; and that in the worldwide realm of children's books, the literature be kept inside, the sociology and pedagogy out. (355)

아동문학의 목적은 교화가 아닌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동문학의 특성은 어린이의 불변의 가치인 경이로움, 꾸밈없음, 웃음과 따뜻함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아동문학의 세계 속에 살아있다. 이 세계 속에는 사회학이나 교육학이 아닌 문학이 존재한다.

교훈성이나, 즐거움이나를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동문학에서 교육적 관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동문학이 어린이의 인격형성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문학이나 아동 문학 연구에서 외면할 수 없는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노들먼이나 에고프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즐거움'은 아동문학에서 교훈성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카린 레스닉-오버스타인(Karín Lesnik-Oberstein)의 주장은 즐거움과 교훈성의 갈래에서 아동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준다.

To the children's literature critic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children's literature' is that it is supposed to speak to the reading child through amusement and inherent appeal, and not instructive, coercive, intrusive or dull to the reading child. This also often comes to be the main means of indicating the 'literary' qualities of children's books. ("Essentials" 21)

아동문학 비평에 있어서 '아동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훈적이고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거나 단조로운 교훈적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닌 즐거움과 고유의 호소력을 통해서 독자인 어린이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린이 책의 '문학적'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레스닉-오버스타인의 주장은 아동문학에서 중요성을 두어야 할 점은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즐거움과 호소력을 통해서” 어린이 독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노들먼이 주장했듯이 읽는 즐거움은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다. 즐거움과 고유의 호소를 통해서 독자의 마음에 대화를 건다는 것은 문학적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다.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화들(fairy tales)이나 고전(classics)이라는 사실은 이들 옛이야기나 고전에는 어린 시절에 읽는 수많은 창작동화나 생활동화 등과는 다른 고유의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그러한 고유의 매력은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문학적 기술이 아동 독자들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전달해주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삶의 문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도와준다는 점에 있다. 옛이야기나 고전을 소재로 한 동화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어린이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으며 현대의 창작 동화와는 달리 어린이의 깊은 내면적 갈등을 다룬다는 베텔하임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베텔하임 17, 23). 어린이들은 옛이야기를 통해 현실 속의 자기 모습을 반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좀더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는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김환희 5)는 김환희의 연구 결과도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준다. 오버스타인이나 베텔하임, 김환희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동문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훈성이나 즐거움 어느 한가지가 아닌 이 두 요소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며,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교육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사이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아동문학의 두 번째 이슈로써 아동문학의 대상인 어린이에 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아동문학에는 진정으로 어린이가 존재하는가? 또한 어린이를

위한 문학(literature for childre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당연히 되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비평가들은 매우 회의적 견해를 피력한다. 예를 들어 로즈는 그의 저서 『피터 팬 또는 아동소설의 불가능성』(*The Case of Peter Pan or: The Impossibility of Children's Fiction*)에서 어린이 소설 속에는 어린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로즈는 어린이를 위한 책, 어린이를 담은 책,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거는 책이 진정한 어린이 소설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린이 소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어린이 소설이 쓰여 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린이 소설은 불가능성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 로즈가 주장하는 어린이 소설의 불가능성은 성인작가와 어린이 독자와의 간격에서 출발한다. 만약 성인작가가 책 속에 어떠한 어린이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정의내릴 수 없는 책 밖의 어린이(현실의 어린이)를 책 속에 고정화시키기 위한”(2) 의도에 의한다는 것이다. 로즈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중의 하나로 『피터 팬』(*Peter Pan*)을 지목한다. 그 이유는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린이로 남아있는 피터 팬은 “순수한 어린이”를 원하는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상의 어린이일 뿐, 성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어린이의 반영도 아니요, 어린이를 순수의 틀 속에 감금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작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피터 팬은 자라고 싶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자라지 않는 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3)이라는 로즈의 이야기는 성인작가와 어린이 독자사이의 심연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로즈의 주장에 의한다면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린이를 이용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동문학은 문학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 그 속에 실제로 어린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2)라는 로즈의 주장은 ‘어린이’라는 이미지 또는 이념이 성인 작가에 의하여 ‘이용’되어지는

측면을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로즈처럼 아동문학과 어린이독자와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바바라 월(Barbara Wall)처럼 어린이를 담은 어린이 문학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을 가능케 해주는 견해도 있다. 월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를 예로 들어 앨리스(Alice)는 어린이의 마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Alice's became the first child-mind, in the history of children's fiction, to occupy the centre No narrator of a story for children had stood so close to a child protagonist, observing nothing except that child, describing, never criticising, showing only what that child saw. (24)

앨리스는 아동 소설의 역사상 최초로 어린이의 마음을 담은 주인공이었다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 어떤 이야기의 화자(나레이터)도 앨리스 이야기에서처럼 어린이 주인공에게 가깝게 접근한 화자는 없었다. 그 화자는 어린이 외에는 어떤 것도 관찰하지 않았다. 단지 어린이가 본 것만을 결코 비판하는 일 없이 그대로 묘사할 뿐이었다.

성인 작가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쓰여지는 아동문학은 창작단계에서 이미 실재의 어린이(real child)를 '아웃사이더'(outsider)로 설정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린이의 마음과 눈을 담으려는 작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작품 속에 실재의 어린이를 재현해 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위의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아동문학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사유되고 창작된 아동문학작품이라면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마지막으로, 아동문학의 정체성(identity)을 둘러싼 논쟁은 아동문학 연구가 대면해야 하는 핵심적 주제라 하겠다. 기실 ‘아동문학’이란 개념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작가들과 출판업자들이 그 개념을 발명하고 고집하였다. 아동문학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좋은 책”과 “저속한 책”이 있을 뿐이었다(뇌스틀링거 216). 아동문학은 성인문학과 다르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작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아동문학의 논점들이 그러하듯이 이에 대해서는 논란만 있을 뿐 합의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의 특징에 대해 마이클스 맥도웰(Myles McDowell)은 아동문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성인문학보다 좀 더 짧고, 능동성을 선호하며, 묘사보다는 대화체와 사건 위주이고, 성인 소설에서는 무시하는 도덕성을 중시하며, 낙천주의적이고, 어린이 지향적 언어의 사용과, 특유한 순서에 의한 플롯(plot), 개연성의 무시, 그리고 끝없는 마술과 판타지, 천진난만함과 모험에 있다고 보았다(51). 이에 반해 나탈리 배빗(Natalie Babbit)은 아동문학은 성인문학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성인문학보다 더 천진하고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재에 있어서도 성인 문학과 마찬가지로 전쟁, 장애, 가난, 잔인함 등과 같은 인생의 모든 거친 양상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157). 한편 레스닉-오버스타인은 아동문학의 특징을 소재나 이야기의 길고 짧음, 또는 구성의 단순성 등이 아닌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찾을 것을 제시해 준다. 그녀는 아동문학의 현저한 특징은 주로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닌 즐거움과 고유의 매력을 통하여 독자인 어린이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Essentials” 21). 고유의 매력이란 재미있으면서도 그 속에 내재한 어떤 호소력을 가지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동문학은 그 특징에 대하여도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만족스러운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 헌트는 이러한 아동문학에 대하여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린이와의 어떤 관계를 담은 혼란스러운 텍스트의 집합”이라고 정의 아닌 정의를 내린다(Hunt 6). 헌트의 이와 같은 정의는 아동문학의 모호함과 복잡한 속성을 그대로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찰스 사랜드(Charles Sarland)는 아동문학 비평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debate)과 “연구”(examination)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에 의하면 의문시되는 가치들일수록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추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43). 토론과 연구가 활발해질수록 아동문학의 해답 없는 논쟁들과 문제들은 해답을 찾아서 정리되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토론과 연구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아동문학의 지평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아동문학의 토론과 연구들의 중심에는 한결 같이 ‘어린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개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동문학연구나 비평은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의도야말로 어떠한 이론보다 소중한 것이며 진정으로 어린이를 이해하고 돕고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은 성장해 가는 것이며 이와 함께 어린이도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아동문학이 진정으로 어린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이라는 아동문학작품을 통하여 아동문학이 반영하고 있는 어린이의 진정한 모습과 그 가치에 관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성장과 관련지어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Ⅲ 『살롯의 거미줄』 (*Charlotte's Web*)에 나타난 어린이의 성장

1. E.B.White와 아동문학

엘윈 브룩스 화이트(Elwyn Brooks White)는 “성공적인 아동문학을 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글을 써야 하는데 그 한 명의 어린이란 이른바 자신 속에 있는 어린이이다”라는 피엘 트래버스(P. L. Travers)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이었다(Agosta 4). 화이트가 일생동안 소중히 여긴 최고의 가치를 꼽는다면 그것은 ‘자연’(nature)과 ‘어린이다운’(childlike)마음이다(Agosta 4). 그는 자연이 주는 문명으로부터의 방해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단순함을 사랑하였다. 또한 화이트는 어린이 다움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평생을 통하여 어린이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고 많은 어린이들과 교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열정적 사랑과 어린이다운 환희와 교류하고자한 욕망은 화이트의 삶과 문학적인 작업을 통합해주는 모티프였다(Agosta 4).

1899년 전형적인 미국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 근교의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의 저택에서 보낸 화이트의 어린 시절은 애완용과 가축을 망라한 각종동물들과 초록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자연 등의 모든 성장하는 창조물과 함께 한 시절이었다. 자연은 어린 시절의 화이트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의 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느끼는 아동기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해결사였다(“A Boy I Knew” 34).

자연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화이트의 삶과 작품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921년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을 졸업한 후 잡지 사 '뉴요커' (*New Yorker*)에 몸담으면서 쓴 그의 글의 주제는 주로 현대 사회의 복잡함이나 과학기술의 폐단, 도시와 시골 생활의 즐거움 등이었으며 이후 쓴 아동소설들도 주로 시골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Agosta 5).

에드워드 샘프슨(Edward C. Sampson)에 따르면 화이트는 궁극적으로 삶의 자세와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화이트는 다른 작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어떠한 당시에 유행하던 문예사조나 사상에도 속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외롭지만 진실한 개인주의자와도 같았다(163).

화이트가 아동문학을 쓰게 된 계기는 18명의 조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고안하던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쥐를 소재로 한 에피소드들을 틈틈이 썼었는데 전쟁(2차 세계대전)이후에 이것을 책으로 묶어 출간한 작품이 그의 첫 어린이 소설인 『스튜어트 리틀』 (*Stuart Little*)이다. 1945년에 발행한 이 작품은 인간가정에서 태어난 생쥐 만한 크기의 생쥐 형상을 한 아이인 스튜어트가 모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전의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획득한 영웅으로 성장해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어서 1952년 발행한 『샬롯의 거미줄』 (*Charlotte's Web*)은 화이트가 메인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와 우연히 발견한 돼지우리의 거미로부터 착상을 얻은 작품으로써 겨울이면 도살되어 죽을 운명에 처한 돼지를 친구인 거미가 거미줄에 쓴 글씨를 이용해 구해준다는 내용을 주요 플롯(plot)으로 하고 있다. 『샬롯의 거미줄』은 발행되자마자 베스트 셀러가 되었으며 어린이, 부모, 그리고 교사 및 도서관업자 등을 포함한 아동문학 전문가라는 아동문학의 세 부류의 지지자 층⁵⁾으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

다. 『스튜어트 리틀』과 『샬롯의 거미줄』로 인해 화이트는 ‘Laura-Ingalls Wilder Medal’⁶⁾을 수상하게 되며 『샬롯의 거미줄』은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화이트의 세 번째 어린이 소설인 『트럼펫 부는 백조』(*In The Trumpet of The Swan*)는 병어리 백조가 트럼펫 부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유명해 진다는 이야기로써 역시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이트의 작품들은 모두 동물이 주인공이며 동물이 말을 하고 마술적 도움에 의해 목숨을 구한다거나 역경에서 구원받는 등의 판타지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역사적 정황이나 정치, 사회적 배경 또는 특정 사상 등의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보다는 어린 동물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화이트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으며(*Letters* 614) 감추어진 심오한 의미를 찾고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Letters* 313) 과연 화이트가 역사와 정치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화이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역사적 정황을 놓고 볼 때도 그러하다. 『샬롯의 거미줄』을 쓰던 1949년에서 1951년 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산업화된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분화된 사상으로 나누어졌으며 이에 따른 핵 위협과 냉전의 첫 국면을 맞이하게 된 시기였다. 실제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

5) John Griffith는 그의 저서 *Charlotte's Web: A Pig's Salvation*에서 아동문학의 세 부류의 지지자(three constituencies)로서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 도서관업자,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등의 전문가 층을 예로 들어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6) 이 상은 미국에서 발행된 아동문학 작품의 저자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수여된다.

황에 의해 미국에서는 2차 대전 후 산업화로 인해 달구어진 경제적 봄이 핵 무기에 의한 세계 제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의 그림자로 인해 어두워졌다. 화이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차 대전 당시에 과병을 요청했으나 몸무게 미달로 군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창작된 『샬롯의 거미줄』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평화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만이 존재하는 지상낙원이다. 본 작품의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 화이트의 말대로 정치성이 없다가보다는 의도적인 역사적 정황의 빠뜨림이라고 해석하는 비평가도 있다. 의도적으로 역사적 정황을 빠뜨렸다는 것은 역으로 역사적 정황에서 비롯한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Griffith, *Salvation* 2). 존 그리피쓰(John Griffith)의 저서 『샬롯의 거미줄: 돼지의 구원』(*Charlotte's Web: A Pig's Salvation*)에 의하면 실례로 윌버(Wilbur)를 위협하는 죽음은 독단적이고, 무의미하며, 그의 통제력 밖에 있는 죽음이라는 성격을 띄는데 그것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위협했던 핵폭탄의 위협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윌버의 죽음은 처음부터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띄고 있었고 그러한 정치적 의도성에서 이 작품은 시작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샬롯의 거미줄』을 역사와 정치적 관점에 의하여 해석하는 비평은 발견하기 힘들다. 『샬롯의 거미줄』이 담고 있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역사나 그 밖의 것들--정치, 경제--로부터 휴가 중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화이트의 어린이 소설의 특징은 모두 과거에 대한 향수와 아동기의 단순함을 담고 있으며 전원을 배경(rural setting)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이트의 어린이 소설들을 유명하게 만든 요인은 그것들이 모두 동물판타지의 고전(classic)의 전통을 따랐다는데 있다(Griffith, *Salvation* 5). 말하는 동물들이 등장하며 동물과 인간이 거의 같은 조(team)로 혼합되어 있고, 판타지와 리얼리티(reality)의 조합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러하다. 아동문학의 동물판타지는 루이스 케롤(Lewis Carro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를 필두로 하여 메리 몰스워스(Mary Molesworth)의 『삐꾸 시계』(*The Cuckoo Clock*), 케네스 그라함(Kenneth Grahame)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The Wind in the Willows*), 밀른(A.A.Milne)의 『곰돌이 푸우』(*Winnie the Pooh*)등의 순으로 계승되었으며 『샬롯의 거미줄』은 20세기의 마지막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Sampson 95). 『샬롯의 거미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데 충성심(loyalty), 정직(honesty), 사랑(love), 슬픔(sadness), 행복(happiness)등이 그것이다(같은 책, 95). 이것은 어찌 보면 교훈적인 면으로 평가가 치우친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샬롯의 거미줄』은 이러한 교훈적 요소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교나 직접화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독자의 상상력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샬롯의 거미줄』의 특징은 마저리 피셔(Margery Fisher)가 주장하는 어린이 소설론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피셔는 “우리가 어린이 소설에 기대하는 것은 설교나 사법적인 논쟁이나 사회적 소 논문이 아니며, 어린이 소설은 독립적인 예술의 한 분야로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마음과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Haviland 273, 재인용)고 주장한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화이트는 두 어린이(?)로 등장하는 편(Fern)과 윌버(Wilbur)를 통하여 어른과 구별되는 어린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린이는 미숙하다’는 관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편(Fern)의 아버지 에러블씨(Mr. Arable)는 간밤에 태어난 새끼돼지를 죽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새끼돼지는 무너리(runt)로서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어머니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며 아버지를 말리기 위하여 뒤쫓아 나가는 편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돼지는 어차피 죽게 될 것7”이라고 말한다. 편이 절박함을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Fern pushed a chair out of the way and ran outdoors. The grass was wet and the earth smelled of springtime. Fern’s sneakers were sopping by the time she caught up with her father. (1)

편은 의자를 밀치고 문밖으로 뛰어나갔다. 풀은 젖어있었으며 흙에서는 봄의 냄새가 묻어났다. 아버지를 따라잡았을 때 편이 운동화는 흠뻑 젖어있었다.

아버지의 팔에 든 도끼에 매달려 흐느끼며 새끼 돼지를 죽이지 말라고 애걸하는 편에게 아버지는 “돼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3)”며 “허약한 놈은 늘 말썽만 일으킨다(3)”라고 딸의 무모한 항거를 꾸짖으면서 “너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겠다(2)”고 충고한다. 하지만 편에게 아버지의 이러한 충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녀에게 있어서 한 생명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일일뿐만 아니라,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들어본 일 중 가장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3). 결국 이 돼지의 목숨은 편이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편이 손에 돼지의 목숨을 넘긴 이유는 철없는 딸에게 돼지를 키우는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허약한 돼지가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는 지를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3). 하지만 이 돼지는 모두의 상상을 깨고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돼지로 성장하여 품평회장에서 입상까지 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물론 이 돼지가 입상한데는 거미줄의 글씨

7) E. B. White, *Charlotte's Web*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80)

1. 이후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을 명기함. 우리말 번역본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의 번역은 전적으로 필자의 것임.

라는 기적적 현상이 한몫을 했지만, 거미줄의 글씨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의젓하고 튼튼하게 변한 새끼돼지의 성장도 뒤따랐기 때문임을 이야기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의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보는 성인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인들은 어린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가려져서 어린이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순수함과 자신이 배운 가치(정의)를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에 위배되는 일에 용감하게 항의할 줄 아는 단순함과 당당함을 보지 못한다. 아동심리학자 장 클로드 브리프(Jean-Claude Brief)는 어린이를 무조건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적합한 특별한 진실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진실만이 진정한 세상을 나타낸다는 구실을 붙여 특권을 주는 일은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64)

어린이에게 미숙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화이트의 생각은 도리안씨(Dr. Dorian)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헛간에서 거미 샬롯이 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편을 비정상이라고 여기고 의사 도리안씨를 찾아가 딸의 상태에 대해 상담하는 편의 어머니에게 도리안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It is quite possible that an animal has spoken civilly to me and that I didn't catch the remark because I wasn't paying attention. Children pay better attention than grownups. (110)

동물이 나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린이는 성인보다 주의력이 뛰어나답니다.

도리안씨의 위와 같은 말에서 일상사에 얽매어서 순수한 자연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어른들에 비해서 자연과 단순한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어린이가 지닌 능력에 어른보다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는 신체적 크기가 반드시 내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월버가 품평회장에서 만나게 되는 '영클'(Uncle)이라는 돼지를 통해 나타낸다. 영클은 월버의 옆 우리에 들게 된 돼지로 월버 보다 월등히 크다. 따라서 큰 등치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지만 월버의 친구인 샬롯이 대화를 나누고 느낀 바에 의하면 "뽀뽀하고 시끄러우며 등치만 큰 돼지"(135)일 뿐이다. 이에 반해 월버는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겸손하다(151)"는 이유로 영클보다 더 호감을 끄는 돼지가 된다. 여기서 신체적으로는 크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돼지의 이름이 영클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이 돼지는 어찌 보면 등치만 컸지 삶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 어른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클과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월버는 어른과 대조되는 어린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클에 맞선 월버의 승리는 어른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성숙의 척도는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어린이는 전통적으로 나약한 존재, 판단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존재,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어른의 훈육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

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어린이의 본분으로 여겨져왔다. 이러한 사상의 근간에는 어린이는 ‘미숙’하며 어른은 ‘성숙’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과연 어른은 어린이에 비해 우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화이트는 본 작품, 『샬롯의 거미줄』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루소 (J. J. Rousseau)는 모든 연령, 모든 생명상태는 그에 적절한 완결성, 오로지 그에게만 적절한 완숙도를 지닌다고 보았다(김경수 40,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루소는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그 나름대로의 완전성을 갖춘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완전한 존재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은 어린이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수정을 요한다. 루소에 의하면 어린이는 그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년기는 어른들과 또는 청년기와 구분되는 것이며, 어린이기에서 청년기로, 즉, 한 연령층으로부터 다음 연령층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행’이 아니라,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의 ‘비약’, 즉 ‘두 번째 탄생’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김경수 40, 재인용). 화이트가 본 소설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아동관과 성장에 대한 관점--어린이는 미숙한 존재이거나 어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은 이러한 루소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게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편’(Fern)이라는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편’(Fern)은 ‘양치류’의 식물을 일컫는 말이다. 랜즈는 편은 봄의 습기 속에 깊이 파묻힌 어린 식물로서 그 자체가 ‘새로운 성장’(new growth)을 상징한다고 보았다(Landes 277). 무녀리 돼지 월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봄날 아침 이슬 먹은 풀에 운동화가 흠뻑 젖도록 아버지를 뒤쫓아가는 편에 대한 묘사(1)나 이러한 편 노력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훌륭한 돼지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는 월버, 그리고 월버와의 만남을 계기로 헛간사회를 통한 성장을 시작하는 편 등은 모두 랜즈가 주장하듯 ‘새로운 성장’과 관련을 맺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이룸

으로 가진 아이인 편은 동물들과 친화하면서 자연과의 유대를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편을 통해 헛간의 동화가 가능해진다는 해석 또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화이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어린이의 세상의 완전함, 그리고 어린이의 성장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이행이 아닌 성숙에서 또 다른 단계로의 성숙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편(Fern)

편은 이 소설의 첫 두 장(chapter 1-2)을 이끌어 가는 여자어린이이다. 이 소설은 동물들이 사는 '헛간 안마당'(barnyard)을 주무대로 한 동물 판타지(animal-fantasy)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실적 배경묘사와 개연성 있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설의 첫 두 장은 화이트가 작품의 초안을 완성하였을 당시(195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이다. 초안을 완성한 후 작품이 만족스럽지 않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가 새롭게 추가한 부분 중의 일부가 편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1장과 2장이라고 한다. 이 두 장을 포함하는 수정과정을 거친 후, 1952년에 『샬롯의 거미줄』이 발행되었을 때 초판에서만 5만 부가 팔려나가는 등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Agosta 67). 하지만 작품의 유명세에 비해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편은 비평적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많은 평자, 독자들은 이 소설을 단순히 윌버(Wilbur)라는 새끼돼지와 샬롯(Charlotte)이라는 여자거미의 우정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편 역할에 대해서라면 이야기의 서두에서 무너리로 태어난 윌버를 구해주고 이

후 주커만 농장(Zuckerman's Farm)으로 팔려갈 때까지 엄마처럼 그를 돌봐 주는 정도로 기억되곤 한다. 이 부분이 월버의 탄생으로부터 이후 5주간의 기간에 속하는 이야기의 초입이며, 편이 이야기 전개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후 편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모습을 감추어 가고 후경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커만 농장으로 월버가 옮겨간 후에는 샬롯이라는 월버의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샬롯과 월버를 중심으로 한 헛간 생활과 그 안에 사는 동물들의 대화 및 사건들을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조차 편의 역할을 헛간 안의 동물사회를 소개하기 위한 소개자(introducer)로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다.⁸⁾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이트가 헛간 안의 동물들의 이야기 못지 않게 헛간 밖 세상의 어린이인 편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이야기의 구성상 편이 거의 모든 장에 직,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편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장은 5장 단 한 장뿐이다. 첫인상과는 달리 사실상 편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주인공인 것이다. 화이트가 편에게 동물사회의 소개자로서의 의미만 두었다면 편을 이처럼 이야기의 시종일관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월버의 성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듯이 월버를 헛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편 또한 성장해가고 있음을 이야기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편 또한 월버처럼 작가가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 주인공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자, 독자에게 편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 제니스 엘버겐(Janice M. Alberghene)이나 존 업다이크(John Updike)같은 비평가에게 편은 이야기의 중심을 샬롯과 월버에게로 옮기기 위한 장치적 역할에 불과하다. 특히 제니스 엘버겐은 월버와 샬롯의 유대가 강해지면서 편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므로 이야기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Updike 77 ; Alberghene 34).

그 이유를 필자는 편이 성장(growth)에 있다고 보았다. 편은 월버처럼 끝까지 헛간이라는 이야기의 중심무대에 남지 않는다. 애초에 헛간 밖에 거주하는 편은 월버로 인해 헛간에 잠시 머물다가는 헛간 밖의 세상으로 떠난다. 헛간에서 태어나 잠시 머물다가는 풍선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는 샬롯의 새끼거미들처럼 말이다. 헛간이라는 이야기의 중심무대에서 볼 때 편은 헛간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게 틀림없다. 따라서 헛간의 동물이야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던 독자들은 편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편이 소설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편은 소설의 첫 부분에서 그러했듯이 소설의 끝 부분에서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사실에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 편은 이전의 새끼돼지의 목숨을 구하느라 아버지에게 항거하는 많은 어린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정심 많은 순진한 어린이도 아니고, 월버를 질병으로 키우는 동경의 주인공도 아니기 때문이다. 편은 이제 헛간의 동물친구들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소녀가 되어있다. 편은 성장한 것이다. 편이 성장한 것은 이 소설 속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편이 성장한 것은 판타지(fantasy)와 현실(reality)의 혼합이라는 이 소설의 형식에서 현실의 어린이(a child in reality)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써 판타지 속의 어린이 혹은 어린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월버와 함께 소설의 형식상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 주며 어린이 독자가 가상 속의 어린이 이미지(월버)로 시야가 한정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둘째, 헛간관찰자로서의 편은 '어린이문학'을 접하는 어린이독자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버가 속한 헛간 안의 세상은 노동의 필요가 없고 영원히 보호받는(후에 월버는 도살의 위험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세상이라는 점에서 판타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편이 속한 세상은 헛간 밖의 세상으로써 어린이는 어른으로 성

장해야하고 이것은 곧 어른의 보호를 벗어나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실의 세상이다. 따라서 헛간 안에서 샬롯이 해주는 치열한 삶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헛간 안의 월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헛간 밖의 편이 속한 세상의 진실이요, 그 세상을 살아갈 편을 위한 교훈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버를 주인공으로 한 헛간 안의 이야기는 아동문학의 상징으로, 헛간 율타리 너머에서 월버와 샬롯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그들과 우정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삶의 진실을 배워나가는 편은 어린이 독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아동문학과 어린이의 성장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 편 의 성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편 의 성장을 보는 관점과 성장의 면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편의 성장을 보는 관점은 비평가들마다 다양하다. 존 그리피스(John Griffith)는 편 의 성장에는 꾸준한(steady) 진행과정이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샬롯의 거미줄』은 성장이야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Salvation 26). 반면에 페미니즘에 기초한 비평을 하고 있는 루시 롤린(Lucy Rollin)은 월버와 편 의 성장을 비교하면서 남성 주인공인 월버는 계속해서 의존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숙의 일반적인 기준들에서 이탈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infant)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 주인공인 편이나 샬롯은 월버를 양육하는데서 시작해 차츰 다음 단계로 변모하는, 다시 말해 “성장하는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46). 한편, 노튼 킹혼(Norton Kinghorn)같은 비평가는 편이 동물과 교감하고 자연과 교류하였던 이야기 초기의 순수한 어린이 상태를 벗어나 월버나 샬롯 같은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품평회에서 남자친구와 물질문명의 상징인 공중회전차(Ferris wheel)타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태로 변화한 것은 순수의 세계를 이탈하여 물질문명의 세계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편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Griffith, *Salvation* 14, 재인용).

이러한 비평가들의 견해는 화이트의 소설을 편의 성장이야기로 볼 수 있는가와, 편의 성장했다면 그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장이야기로 보지 않는 그리피스의 경우, 편의 모습은 세 국면--월버의 양육자, 헛간 관찰자, 품평회장에 간 모습--을 따라 묘사되고 있는데 각각의 국면을 연결해주는 변화의 상황이나 원인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야기 속에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riffith, *Salvation* 26-27). 성장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간단계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버의 양육자에서 품평회장에 간 편으로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편의 월버가 참석한 품평회장에는 동행하지만, 정작 월버의 승리나 함께 간 샬롯의 안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관심사라곤 오직 남자친구인 헨리(Henry)와 공중회전차(Ferris wheel)를 타는 일 뿐이다. 월버가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에서도 편의 가족 중에서 홀로 빠져있다. 이미 헨리를 찾아 공중회전차를 타러 놀이마당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너리돼지로서 죽어야하는 월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침식탁에 앉다 말고 아버지를 말리러 뛰쳐나가 아버지의 도끼든 팔에 매달리던 첫 장면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편의 변화는 헛간관찰의 단계로부터 갑자기 이어진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게 해 줄만한 작가의 설명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편의 변모는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며, 독자들에게 당혹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편의 변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피스의 주장대로 '변덕'이라는 단순한 아동기의 매력(31)으로 단정지어 넘길 것인가? 아니면 화이트의 미숙한 작품구성 능력 탓인가? 혹은 화이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편의 변모는 그리피스가 주장하듯 단순한 아동기의 특

정을 나타내려 함도 아니고 화이트의 미숙한 작품구성 능력 탓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화이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화이트가 편이 변모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의 성장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코자 함이라는 것이다. 어린이의 성장은 꾸준한 변화과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열규에 의하면 어린이의 성장은 벼락과도 같고 우레와도 같은 엄청난 변화이다 (100). 편이 갑작스런 변모는 이러한 성장의 특성을 대변해준다.

편에게 있어서 잠재적 성장의 무대는 주커만 농장의 가축들이 사는 '헛간 안마당'(barnyard)이다. 편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와서는 해가 질 때까지 월버와 샬롯을 비롯한 헛간의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이에 대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걱정하는 어머니는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 그러한 어머니의 채근에 편은 이렇게 대답한다.

"Alone?" said Fern. "Alone? My best friends are in the barn cellar. It is a very sociable place. Not at all lonely." (107)

"혼자라구요? 혼자라니요?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 헛간 아래층에 있는 걸요. 거긴 매우 사교적인 곳이에요. 전 전혀 외롭지 않아요." 편이 말했다.

편에게 있어서 동물친구들이 살고 있는 헛간은 고립된 곳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라는 사실을 위의 편이 대답은 강조한다. 실제로 편은 헛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과 동물들 사이의 대화들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즐거워한다. 헛간 안에는 우정과 생명의 탄생과 경탄과 함께 살기의 미학이 있다. 반면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 또한 있다. 편에게 있어서

헛간은 작은 세상이며 8살짜리 그녀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해주는 성장의 무대인 것이다.

이러한 헛간사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동물들이 말을 하고 거미가 거미줄로 글씨를 쓰는 등의 판타지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판타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았을 때의 현실의 자연 그대로의 세상이다. 판타지의 세상으로 본다면 헛간에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어가는 사건들을 흥미와 우정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기쁨, 경탄, 슬픔, 공포 등의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보이는 온갖 감정들을 함께 느끼는 편이 모습은 아동문학 작품(소설)을 읽어나가는 독자들과의 모습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헛간사회가 편이 잠재적 성장의 무대가 되듯이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잠재적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화이트는 암시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헛간사회의 메시지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샬롯은 작품의 마지막에 진실한 친구이자 훌륭한 작가였다(184)고 묘사되고 있다. 샬롯에 대한 이런 묘사 역시 샬롯을 통해 성장하는 월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편을 상상케 함으로써 아동문학작가의 역할을 암시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헛간사회를 보면서 편이 성장해가듯이 아동문학을 접하면서 어린이들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어질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헛간사회를 판타지의 요소를 제외한 현실의 자연 그대로의 세상으로 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샬롯의 거미줄의 기적과 동물들이 말을 한다는 점등을 빼고 나면 헛간사회는 철저히 현실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헛간안의 동물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며(편을 제외한 인간은 누구도 동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인간의 옷을 입거나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지 않는다. 또한 돼지는 돼지대로, 쥐는 쥐대로, 거미는 거미대로 모든 가

축들은 그들의 자연적 습성을 따라 묘사된다. 특히, 거미 샬롯의 거미줄 짜는 과정이라든가, 먹이를 사냥하여 먹는 법, 그녀의 일대기 등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⁹⁾. 헛간 사회를 자연 그대로의 세상의 반영으로 본다면 편지 잠재적 성장의 무대는 헛간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nature)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어린이인 편과 편지 오빠, 에이브리(Avery)는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편과 에이브리는 농장 입구에 매달아 놓은 밧줄그네를 타며 놀고 그네 타기에 지치면 목초지로 내려와 나무딸기를 따먹고, 개구리나 뱀 같은 파충류를 망라하는 생물들을 가지고 노는가 하면, 겨울이 오면 농장의 눈 덮힌 언덕에서 썰매타기를 한다. 이러한 자연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세상은 매우 순수하게 부각된다. 노튼 킹혼(Norton Kinghorn)은 ‘잃어버린 순수’(lost innocence)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의 에세이 “『샬롯의 거미줄』에 나타난 진정한 기적”(“The Real Miracle of *Charlotte's Web*”)에서 순수한 어린이의 능력에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한다.

The ‘real miracle’ is the childlike capacity to converse with animals, appreciate the splendor of nature, and experience ‘the mystical tie that exists between a sensitive child and the earth and all the creatures and things of the earth’. (Griffith, *Salvation* 14, 재인용)

‘진정한 기적’이란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9) 어거스타(Lucien Agosta)에 따르면 화이트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1년 동안 거미에 흥미를 느껴 거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중이었다고 한다(73). 이러한 사실적 묘사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거미의 일생과 거미줄, 농장의 생활에 관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샬롯의 거미줄』을 이용한다고 한다(Misheff 133). 존 업다이크(John Updike)처럼 헛간사회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편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비평가도 있는 실정이다(76).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와 지구와 지구 안의 모든 사물과 창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 유대’를 경험하는 어린이의 능력이다.

자연에 대한 화이트의 시각은 낭만적이다.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Wordsworth)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처럼 화이트는 어린이의 시각이야말로 세상의 경이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중재가 없이 직접적으로 자연계를 관찰하고 경험하게 하며 양식과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유머감을 제공하는 열쇠라고 보았다(Agosta 4).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은 어른들이 생각하듯 공허한 사물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의 내면의 성장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한 예가 자연을 탄생과 죽음 등의 삶의 진리의 전달자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자연의 모든 생명이 활개치는 여름 날, 풀잎 위에 붙어 있는 침을 뱉어놓은 듯한 작은 방울을 까보면 초록색 애벌레가 들어있으며 감자 잎의 뒷면에는 감자벌레의 오렌지 빛 알이 달려있다. 이러한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땅의 광경 위에서는 새들이 하늘을 날며 삶이 얼마나 짧고 사랑스러운지 아는 것 마냥 노래한다.

Sweet, sweet, sweet interlude; sweet, sweet, sweet interlude. (43)

새들의 노래 소리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의 짧은 여정에 비유한 ‘달콤한 막간’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화이트는 자연을 삶의 진리의 전달자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화이트의 자연관은 교사로서의 자연을 노래한 맥마이클(McMichael)과 맥을 같이 한다.

(We must go and listen) "to Nature's teaching, while from all

around-/Earth and her waters, and the depths of air-/Comes a still voice" (McMichael 895).

(우리는 가서 들어야한다) 지구와 물과 대기의 깊이 등, 자연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으로부터 내는 고요한 목소리의 가르침을.

이러한 자연의 목소리는 모든 것은 잘 있으며, 자연의 섭리대로 순행하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순환은 여전히 존재하다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 (Misheff 138). 화이트는 자연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순수한 어린이의 능력을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적 성장의 교사로서 자연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른의 세계와 유리된 어린이만의 장소,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아동문학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hildren's literature)라고 불리는 19세기동안에는 많은 아동소설에서 나타나던 경향이였다(Misheff 131). 『피터팬』 (*Peter Pan*)의 네버 네버랜드(Never Never Land)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의 원더랜드(Wonderland), 오즈의 마법사 (*The Wizard of Oz*)의 오즈(Oz), 그리고 『비밀의 화원』 (*Secret Garden*)의 화원(Garden)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어린이만의 장소는 나날이 발전해 가는 과학기술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안식처로서 추구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전자기계시대로의 이행과 문화, 사회적 격변, 대규모 이주 등의 외적 변화로 인하여 안식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19세기처럼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편의 잠재적 성장의 장소인 주커만 농장의 헛간에서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안식처이자 어린이만의 상상력의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샬롯의 거미줄』이 창간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화이트가 이 이야기를 쓰던 당시(1949-1951)의 미국사회는 두 차례에 걸

친 세계대전과 대공황(1933)을 거치고 난 후 경제적 붐을 맞이하여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높은 고용률과, 고 임금 등에 대한 기대가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된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분화 되는데 따른 냉전의 세계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핵에 의한 세계 3차 대전의 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었다(Griffith, *Salvation* 1). 윌버가 타의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장소인 주커만 농장의 설정은 처음부터 화이트의 안식처에 대한 욕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한편, 편에게 있어서 주커만 농장은 네버랜드나 윈더랜드, 또는 비밀의 화원이 그렇듯이 어른들의 세상에서 잠시 이탈한 곳으로서, 자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공간이요, 보다 높은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잠재적 성장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터 팬이 네버랜드에 영원히 남는다면, 편은 헛간에 영원히 남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진짜 세상(real world)이라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편은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 편은 헛간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세상의 어린이이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작품 후반부에 편이 변화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성장을 현실적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다. 편이 만일 작품의 후반부까지 헛간에서 동물들만 관찰하는 어린이로 그려졌다면 편은 재클린 로즈(Jacquelin Rose)가 피터팬에 대하여 지적하듯, 어른들의 욕망에 의하여 순수의 세계에 갇힌 영원히 어린이로 남아야 하는 주인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을 테고, 많은 아동문학 작품들이 그러하듯 현실의 어린이(real child)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화이트는 편을 순수의 세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를 순수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의 문제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폼평회가 열리는 날 아침, 편이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은 그녀가 이제 잠

재적 성장기에서 깨어나 새로운 변신을 맞이하러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16장으로부터 편은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The night before the Country Fair, every body went to bed early Fern lay dreaming that she was getting sick in the swings When morning came, ... Fern lugged a pail of hot water to her room and took a sponge bath. Then she put on her prettiest dress because she knew she would see boys at the Fair. (118-119)

품평회 전날 밤에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편은 그네를 타다가 멀미 하는 꿈을 꾸었다 아침이 되자, ... 편은 더운 물 한 양동이를 그녀의 방으로 질질 끌고 가서는 목욕을 하였다. 그런 다음 가장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다. 편은 품평회장에 가면 소년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장을 앞 둔 동화 속의 주인공들이 그러하듯이 편은 품평회가 시작되는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다. 이날 아침의 편의 묘사는 앞으로 품평회장에서 있을 편의 행동의 변화를 암시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편의 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네를 타는 꿈은 이전의 잠재적 성장기와 편을 연결시키는 상징적 모티프로서 역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네 타기는 그 자체가 성장을 암시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장에서 편과 에이브리가 그네 타는 광경은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You climbed up a ladder to the hayloft. Then, holding the rope, you stood at the edge and looked down, and were scared and dizzy. Then you straddled the knot, so that it acted as a seat. Then you got

up all your nerve, took a deep breath, and jumped. For a second you seemed to be falling to the barn floor far below, but then suddenly the rope would begin to catch you, and would sail through the barn door going a mile a minute Then you would zoom upward into the sky, and look up at the clouds, and the rope would twist and you would twist and turn with the rope. Then you would drop down, down, down out of the sky and come sailing back into the barn ... then sail out again(not quite so far this time), then in again(not quite so high), then out again, then in again ... Mothers for miles around worried about Zuckerman's swing. They feared some child would fall off. No child ever did. Children almost always hang onto things tighter than their parents think they will. (69)

편과 에이브리는 사다리를 타고 건초더미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밧줄을 잡고 가장자리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무섭고 어지러웠다. 매듭에다 양쪽 다리를 걸쳐서, 앉는 자리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용기를 내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펄쩍 뛰어 내렸다. 헛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밑으로 잠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밧줄이 몸을 낚아채서 헛간 문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갔다 그 다음 순간 하늘위로 뿔뿔이 떨어져 구름을 보았다. 그리고는 몸이 밧줄과 함께 꼬여서 돌아갔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헛간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 그리고 다시 미끄러져서 나가고(이번엔 그리 멀지 않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그리 높지 않게), 또 다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행여 그네에서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주커만씨네 그네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하지만 어떤 아이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보통 그들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체에 더 꼭 매어 달리기 때문이다.

그네 타기의 이미지에 대해 어거스타는 아동기 자체의 속성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잠시동안 앞으로 돌진해서 하늘 높이 올랐다가는 다시 출발한 지

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가정(home)이라는 단단한 지지기반(support)에 묶여 있는 아동기의 속성을 나타내준다는 것이다. 아동기동안 어린이들은 이러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다. 아동기는 그 자체가 일련의 밧줄 그네 타기에 비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Agosta 94). 반면에, 성인기에는 샬롯처럼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없이 대기 속으로 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네 타기의 이미지는 샬롯의 거미줄 짜기와 대조적이다. 그네 타기와 샬롯의 거미줄 같은 어린이의 성장과 관련된 이미지는 이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편이 '책 속'에서 성인기를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다른 한편, 그네 타기에 대하여 부모들은 걱정한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어린이들이 넓은 세상으로 일주해 들어가서 세상을 품에 안고, 모험을 하고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은 고통과 실망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이러한 그네 타기의 이미지를 품평회장에서의 공중회전차와 연결시킨다. 품평회장에서 편을 남자친구(Henry)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써 헨리라는 대상과 늘 함께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것이 공중회전차이다. 품평회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묘사되는 광경은 하늘 높이 돌아가고 있는 공중회전차의 모습이다(130). 편이 꿈 전날 밤의 그네 타는 꿈은 품평회장에서의 공중회전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공중회전차가 있는 놀이마당으로 사라진다. 얼마 후 편 어머니는 헨리와 나란히 공중회전차를 타고 있는 편 모습을 발견한다.

When Mrs. Arable happened to look up into the starry sky and saw her little daughter sitting with Henry Fussy and going higher and higher into the air, and saw how happy Fern looked, she just shook

her head. "My, my!" she said. "Henry Fussy. Think of that!" (139)

에러블 부인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연히 바라다 봤을 때 그녀의 어린 딸이 헨리와 함께 앉아 하늘위로 높이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에러블 부인은 편이 무척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쩐! 헨리 퍼시 잼아. 그것 참!”

이후 편이 관심사는 오로지 헨리와 공중회전차를 함께 타는 것으로 변모한다. 관심의 대상이 월버에서 헨리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헨리와 공중회전차를 타는 것’이라고 말함이 옳다. 여기서 화이트는 편이 변화를 ‘헨리’라는 대상 한가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 품평회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 높이 회전하고 있는 공중회전차를 보았듯이 편이 변모를 나타내는 대사나 행동들은 모두 ‘헨리를 만나는 것’이 아닌 ‘헨리와 공중회전차를 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버의 승리와 관련한 긴장의 순간, 순간마다 편은 어머니에게 헨리와 공중회전차 탈 돈을 달라며 분위기를 껴다. 월버의 옆 우리에 있는 영클(Uncle)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이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는 순간에도 그랬고(150), 특별상을 받기 위하여 월버를 수상대로 운반하는 분주한 와중에도 그랬으며(153), 마침내 수상대에 도착했을 때(156)도 그랬다. 월버의 승리가 있기까지 전개되는 일련의 긴장과 흥분의 순간마다 편은 늘 한가지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Can I have some money? (150, 153)

Can't I *please* have some money? (156)

용돈 좀 주세요.

편이 그토록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Henry invited me to go on the Ferris wheel again, only I don't think he has any money left. He ran out of money. (156)

헨리가 저에게 다시 공중회전차를 태워준다고 했지만, 그에겐 남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그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편의 위와 같은 이야기에서 그녀의 변화를 또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제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서로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터득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우려했듯이 사회성이 없는 소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어거스타는 다음과 같이 성장의 의미를 부여한다.

Fern begins to grow up and leave childhood behind; she takes her first tentative steps into the real world of relationships, work, and responsibility. (110)

편은 아동기를 뒤에 남겨두고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관계와 일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진짜 세상 안으로 첫 발을 조심스럽게 들여놓는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마침내 어머니가 40센트를 내주자 편은 헨리를 찾아 관중 속으로 날쌔게 달려간다. 그리곤 월버의 수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품평회의 흥분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인 어느 겨울날, 편은 다시 주커만 농장에 에이브리와 썰매를 타기 위해 나타난다. 썰매를

타면서 편과 에이브리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대화는 편의 마지막 대사로서 앞으로 편이 이루게 될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The most Fun there is," retorted Fern, "is when the Ferris wheel stops and Henry and I are in the top car and Henry makes the car swing and we can see everything for miles and miles and miles."
(173)

"Goodness, are you still thinking about that ol' Ferris wheel?" said Avery in disgust. "The Fair was weeks and weeks ago." (174)

"I think about it all the time," said Fern, picking snow from her ear.
(174)

편이 대꾸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공중회전차가 멈춰서고 나와 헨리가 공중회전차의 꼭대기에 있을 때야. 헨리가 그 칸을 흔들면 우리는 수마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

에이브리가 넋더리를 내며 말했다. "세상에나, 너는 아직도 공중회전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니? 품평회가 끝난지 이미 몇 주나 되었잖아."

편이 귓속에 들어간 눈을 파내며 말했다. "난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걸."

품평회가 끝났지만 편의 기억 속에서 공중회전차는 여전히 헨리와 함께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러할 것이다. 편이 그토록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은 헨리와 둘이 있는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공중회전차의 꼭대기에 헨리와 함께 앉아 차를 흔들면서 머나먼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인 것이다. 어거스타의 말처럼 공중회전차에서 편과 헨리가 보는 광경은 그 자체가 성장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Ferris wheel provides the children with a lift up into the freedom of adulthood and offers a vantage point on life in all its variety and abundance. (Agosta 106)

공중회전차는 아이들이 성인기의 자유로 도약하게 해주며 변화와 풍요로 가득한 삶을 제시한다.

편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궁극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향한 꿈이다. 공중회전차는 순진한 아동기에서 사춘기 소녀로 성장하는 편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그녀의 앞에 펼쳐진 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화이트는 공중회전차를 편의 성장 장면에 배치함으로써 편의 성장이 단순한 남자친구를 만나는 연애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편의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킹혼(Norton Kinghorn)은 공중회전차는 물질문명의 상징으로 편의 성장은 순수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물질문명의 세계로 전락한 것이므로 비극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Griffith, *Salvation* 14, 재인용). 하지만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화이트가 물질문명을 배타적인 요소로만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이야기 속에는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모티프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티프들은 자연의 기적적 힘을 상징하는 샬롯의 거미줄과 대조를 이루며 풍자적으로 그려진다. 거미줄에 쓰여진 글씨를 보기 위하여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타고 온 갖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이 샬롯의 거미줄을 둘러싸고 빼곡이 들어서 있는 광경묘사(83)라든가, 활자화된 글자

는 무조건 믿는 인간에 대한 풍자(89)등은 그러한 예 중의 일부이다. 자동차나 글자 등은 현대 문명의 대표적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샬롯의 거미줄과 대조적 이미지로 부각된다. 샬롯이 활자화된 글자는 무조건 믿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미줄의 글씨로 월버의 목숨을 구할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의 성공으로 월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물질문명을 만든 인간이 그 문명에 의하여 속아넘어간다는 풍자의 메시지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이트는 물질문명과 자연의 대비를 통하여 자연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이 물질문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한다. 그 대표적 증거가 월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거미줄에 쓰여지는 네 개의 문안 중 두 개가 광고와 신문에서 얻어진다는 점이다.¹⁰⁾ 현대 문명의 상징인 광고와 신문이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화이트가 현대 문명을 배타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화이트는 현대 문명에서 나온 글자를 거미줄의 글씨로 짜 넣게 함으로써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며 이 조화를 통하여 월버의 목숨을 구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화이트는 문명을 배척하기 보다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문명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하는 쪽이 더 적절하다. 달리 말하면, 현대 사회의 폐단들을 비판하고는 있으나, 리얼리티(reality)의 한 단면으로 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물질문명의 산물인 공중회전차가 상징하는 편의 성장은 순수의 세계에서 물질세계로의 추락이 아니라, 물질문명의 세계가 상징하는 경험의 세계 또는 현실의 세계로의 진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물질문명과 순

10) 헛간에서 함께 사는 쥐인 템플턴(Templeton)은 샬롯이 거미줄에 쓸 두 개의 문안을 구해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안인 'radiant'는 가루비누 포장지의 광고 문안에 있던 단어이며 두 번째 문안인 'humble'은 음식찌꺼기를 싸고 있던 신문지 조각에 들어있던 단어이다.

수의 대립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편익의 성장은 순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편익의 성장의 실질적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헛간사회(Barnyard)

어린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린이는 아직 이세상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한 일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 어른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세상의 일들에 익숙해져 버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나가이 히토시 14).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전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의 질문은 바로 그러한 전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은 어린이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김열규에 의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자주 무서울 정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감정들을 말로 나타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부모들은 이들 아이의 감정을 시인하는 것이 마음 편치 못하는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무시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의 모처럼 표현된 감정을 경시해 버린다(161). 김열규는 이러한 아이들의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해 줄 대안으로 동화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동화는 이들 실존적인 불안과 모순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 주려고 하

는데, 왜냐하면 삶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동화에서는 사뭇 진지하게 다루어져 아이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능한 해결의 방법까지도 제시한다는 것이다(162). 『살롯의 거미줄』에는 위에서 김열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화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이트의 소설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관한 어린이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해주고자 하며, 삶의 계속성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있기 때문이다. 편이 잠재적 성장의 장소이자 어린이 독자의 내면의 성장의 장소인 헛간사회에서 이러한 작업은 시작된다.

『살롯의 거미줄』에는 두 명(?)의 어린 주인공이 등장한다. 편과 월버가 바로 그들이다. 편은 인간세상의 어린이이며 월버는 헛간 안의 동물 사회의 ‘어린이’이다. 편은 헛간 안의 월버를 보며 간접적으로 성장의 경험을 쌓아간다. 한편, 어린이 독자들은 『살롯의 거미줄』이라는 어린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 밖의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월버와 편, 그리고 어린이독자라는 상이한 세계의 사회에 거주하는 어린이 주인공들은 이와 같이 헛간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거미줄(web)의 모습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롯의 거미줄』은 제목 자체가 아동문학과 어린이독자의 성장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부분에서 두 어린이인 편과 월버는 무너리 돼지를 죽이려는 편의 아버지에 의해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다. 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한다.

The pig couldn't help being born small, could it? If I had been very small at birth, would you have killed me? ... This is the most terrible

case of injustice I ever heard of. (3)

그 돼지는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제가 매우 작게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저를 죽이셨겠네요? ... 이걸 제가 지금껏 들어본 일 중에서 가장 부당한 일이에요.

여덟 살짜리 소녀인 편은 작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새끼 돼지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그녀가 지금까지 알아 온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냉혹한 것으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녀 앞에 펼쳐졌으며 그녀가 이제껏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배워왔던 '정당함'(justice)이라는 가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숙련된 농부인 아버지는 무너리로 태어난 돼지는 잘 자라지도 않고, 허약하여 큰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므로 애초에 없애버리는 편이 낫다("A weakling makes trouble", 3)는 사실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딸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새끼 돼지의 생명을 앞에 놓고 충돌한다.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어린이와 어른의 생각의 차이를 극적으로 드러내 줄뿐만 아니라 어린이 독자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문제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만든다.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이나를 막론하고 한 가지로 소중한 것이므로 죽여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작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편은의 생각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생각을 대변해준다. 이에 반해 약한 놈은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으며,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편은의 아버지의 생각은 실리에 기반한 대부분의 어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8살짜리 어린이인 편은이 알고 있는 세상은 정당성에 기초하여 돌아가고 있으며 부당함은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선 사람이나 동물이나를 막론하고 살상이란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어린이의 세상에 어른의 경험에 의존한 규칙

(생명존중과 정당성)위배는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린이의 세상은 실리와 경험을 우선으로 하는 어른의 세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편과 편이 아버지의 충돌은 타협하지 못하는 두 세상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죽음의 문제와 갑작스럽게 직면하였던 월버와 편은 주커만 농장의 헛간에서 또 한번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샬롯이라는 거미에 의해서이다. 샬롯은 첫 만남에서부터 살인자(?)의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이야기 도중 거미줄로 날아든 파리를 재빠르게 자신의 방식으로 죽인 다음 피를 빨아서 먹어치운다. 이것을 본 월버가 경악하자 샬롯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살생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I am not entirely happy about my diet of flies and bugs, but it's the way I'm made. A spider has to pick up a living somehow or other, and I happen to be a trapper I have to get my own living. I live by my wits. I have to be sharp and clever, lest I go hungry. (39-40)

나도 파리와 벌레를 잡아먹는 일이 그리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천성인걸. 거미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하고, 나는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된 거야 스스로 먹고살아야 하기에 나는 나의 기지를 이용해서 살 수밖에 없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예리하고 영리해져야만 해.

‘죽음’과 ‘삶’ 그리고 ‘먹이’는 자연의 먹이연쇄를 이루는 기본요소들이다. 한 생명체의 죽음에 의하여 먹이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체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체의 삶의 수단이 되는 이러한 과정의 순환을 통해서 자연의 전체적 삶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작가는 ‘자연의 현실’(natural reality)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자연의 현실’은 인간의 삶을 대변한다. 샬롯이 자신의 기지(wit)를 써서 덧을 놓고 예리하고 영리하게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살듯이 인간 또한 자신에게 맞는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방안을 구하고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 독립적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모두의 실존의 문제이다. 하지만 죽음과 삶이 얽힌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에 월버는 아직 너무 순진하다. 월버에게 있어서 샬롯은 잔인하게 느껴질 뿐이다. 월버는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샬롯을 제지한다.

“Don’t say that!” groaned Wilber. “Please don’t say Things like that!”
(39)

“그런 이야기는 하지마!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구!” 월버가 신음하며 말했다.

이와 상관없이 샬롯은 자신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킨다.

Why not? It’s true, and I have to say what is true. (39)

어째서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진실을 말해야만 해

생존을 위해 먹이를 죽이는 문제를 둘러싼 월버와 샬롯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월버와 편으로 대변되는 어린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할 많은 진실들--삶, 죽음, 먹고살기의 현실--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어린이는 성숙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종의 구분을 떠나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죽음(살생)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편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현실의 세상은 편이 생

각하듯 그렇게 순수하고 이해될 수 있는 일들만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부당해 보이는 일도 일어나고 죽음도 자행될 수 있는 곳이 현실의 세상인 것이다. 샬롯이 속한 세상은 현실의 세상으로서 편이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속한 세상이며 앞으로 편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샬롯의 죽음에 관한 설명은 편이 속한 헛간 밖의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편은 샬롯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순수한 세상과는 상충되는 그녀의 아버지의 세상을 이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셈이다.

현실의 삶의 진실을 이야기해주고자 샬롯은 입을 열었으나, 윌버는 여전히 샬롯을 향한 반감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자 샬롯은 설명의 방향을 바꾼다.

Do you realize that if I didn't catch bugs and eat them, bugs would increase and multiply and get so numerous that they'd destroy the earth, wipe out everything? (40)

만약에 내가 벌레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벌레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쓸어 버릴거야. 너 그런 걸 알거나 하니?

그제야 윌버는 “그렇다면 너의 거미줄은 좋은 것인 게로구나(40)”라고 하며 샬롯을 향한 불신의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샬롯이 설명의 방향을 바꾼 것은 작가의 어린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샬롯이 순진한 윌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의 단계를 낮추었듯 아직 삶의 본질에 관한 심각한 내용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독자들을 위하여 작가는 설명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과 윌버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현실이라는 어두운 세상의 진실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첫 대면을 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세상--어린이가 알아왔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의 모습은 밝음과 어두움 또는 삶과 죽음이라는 모티브로 헛간사회에서 자주 등장한다. 헛간사회의 배경묘사부터가 그러하다.

The Barn was very large. It was very old. It smelled of hay and it smelled of manure. It smelled of the perspiration of tired horses and the wonderful sweet breath of patient cows. It often had a sort of peaceful smell--as though nothing bad could happen ever again in the world. It smelled of grain and of harness dressing and of axle grease and of rubber boots and of new rope. (13)

헛간은 매우 넓었다. 그리고 매우 오래되었다. 헛간에서는 건초냄새와 두엄냄새가 났다. 지친 말들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우직한 암소들의 숨결에서 나는 단 냄새도 풍겼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다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일종의 평화로운 냄새였다. 곡식과 마구와 굴대에 치는 기름 냄새, 고무 장화 냄새, 그리고 새로 산 밧줄 냄새도 났다.

화이트는 건초와 두엄냄새 그리고 가축의 땀 냄새와 사람의 땀이 벤 고무부츠 등의 냄새가 어우러진 곳으로 주커만 농장의 헛간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건초는 짐승들의 먹이이며 두엄은 이러한 먹이를 먹고 난 후의 배설물이라는 점에서 각각 삶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축의 땀 냄새와 가축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이 만든 도구들이 만드는 냄새는 각각 자연과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내는 제각각의 냄새가 어우러진 헛간은 삶과 죽음, 자연과 문명이라는 상반된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헛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다. 새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위기,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모두 한 장소에서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름이 되자 어미거위가 품고 있던 알에서 일곱 마리의 새끼거위가 부화한다. 헛간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새끼거위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지만 부화된 일곱 마리의 새끼거위 옆에는 아직 부화되지 않은 한 개의 알이 있다. 그 알은 썩어서 쓸모가 없어진 알("It's a dud", 45) 이다. 템플턴은 어미거위에 가서 그 알을 양도받아 윌버의 먹이 구유 밑에 파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다. 이 일이 있던 지 얼마 후, 에이브리가 헛간에 왔다가 윌버의 우리 안의 천정에 매달려 있는 샬롯을 발견하고는 나뭇가지로 샬롯을 떼어내려고 시도한다. 샬롯을 떼어내려던 찰나에 에이브리는 몸의 균형을 잃으며 윌버의 구유위로 넘어진다. 이 와중에 구유가 기울어지면서 구유 밑에 있던 썩은 거위 알이 터진다. 터진 썩은 거위 알에서 나는 냄새가 온 헛간 안으로 진동하자 에이브리는 거미를 잡던 일을 내팽개치고 코를 쥐며 달아난다(74-75). 썩은 거위 알이 샬롯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실패한 썩은 알이 샬롯이라는 소중한 헛간사회의 구성원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는 점 또한 죽음은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샬롯의 죽음의 위기를 가져왔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윌버가 자신의 먹이를 게걸스럽게 먹는 장면이 이어진다.

Wilbur stood in the trough, drooling with hunger. Lurvy poured. The slops ran creamily down around the pig's eyes and ears. Wilbur grunted. He gulped and sucked, and sucked and gulped, making swishing and swooshing noises, anxious to get everything at once.
(75)

월버는 배가 고파서 군침을 흘리며 구유 안에 들어가 있었다. 러비가 죽을 쏘아 붓자, 죽이 돼지의 눈과 귀 둘레에서 크림처럼 흘러 내렸다. 월버가 꿀꿀거렸다. 월버는 획획 소리를 내면서 한번에 모두 먹어 버리려는 냥 꿀꺽 꿀꺽 마시고 핥고, 핥고 꿀꺽 꿀꺽 마셨다.

월버가 음식을 먹는 장면은 방금 전의 죽음의 위기 상황과 대조적이다. 꿀꿀이죽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월버의 모습은 삶에 대한 욕구의 강렬함을 느끼게 해주며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실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가슴 졸이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위기와는 상관없이 먹고살아야 하는 삶의 치열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월버가 꿀꿀이죽을 먹은 후 잠이 들자 샬롯은 월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거미줄을 짰다. 샬롯의 거미줄 자체도 파리나 모기 등의 곤충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샬롯의 생존 수단이며 훗날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또한 삶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헛간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모티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화이트는 삶과 죽음을 '삶은 좋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삶과 죽음을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어린이 독자에게 죽음과 삶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한 연결가지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삶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삶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에 순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삶이나 죽음 어느 하나에 우월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죽음 역시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존재론적 가치의 문제와 연결된다. 샬롯을 만나기 이전에 돼지라곤 한 마리도 없었던 주커만 농장에 팔려온 유일한 돼지로서 가족도 없고 편마저 비 때문에 농장에 오지 못하자 월버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빠진다. 그는 옆 우리에 사는 아기 양에게 친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무 것도 아닌 것만 못하다(28)”며 거절당한다. 그러자 월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I don't think there is any such thing as less than nothing How can something be less than nothing? If there were something that was less than nothing, then nothing would not be nothing, it would be something even though it's just a very little bit of something. (28)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니?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건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지. 아주 조금일지라도 말이야.

위와 같은 월버의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단어를 풀이한 것(literal meaning)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기 양이 말한 대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28)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월버의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네가 아닌 나로서 존재한다는 자체로 기적이며 의미가 있다’는 ‘존재론적 가치’(나카이 히토시 57)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화이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소중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 한 예로 두엄(manure)이나 분뇨(dung)등을 보는 작가의 시각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인식되어지는 두엄이나 분뇨 등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

한 이미지를 벗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커만 농장이 건초더미와 두엄과 말의 땀 냄새가 어우러져서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묘사된 것이나(13), 월버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을 주는 장소가 두엄더미인 점(14),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샬롯이 월버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의 시작부분 등이 그 예이다.

Sleep, sleep, my love, my only,
Deep, deep, in the dung and the dark (104)

잘 자라, 잘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친구여,
고온히, 고온히, 분노와 어둠 속에서

화이트는 가장 더럽다고 인식되는 것들까지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 이야기¹¹⁾ 속에 수용함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들먼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Charlotte's Web is a book about the acceptance and celebration of all aspects of existence, the good along with the bad; in its own phrase, it celebrates 'the glory of everything' (Gubar 104, 재인용)

『샬롯의 거미줄』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양상을 수용하고 찬양하는 이야기이다. 고유의 어법으로 『샬롯의 거미줄』은 만물의 영광을 찬양한다.

11) 화이트는 자신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all that I hope to say, is that I love the world.")이라고 말한바 있다(Elledge 300-301, 재인용).

화이트는 존재의 모든 양상에 대한 수용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가장 하찮은 부분과 헛간사회의 가장 하찮은 구성원이 훗날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함으로써 타자의 수용의 문제를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그 예가 템플턴이다. 템플턴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체면도 없고, 따뜻한 인정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고상한 감정이나 친절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쥐”(46)로써 헛간사회에서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템플턴이 월버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살롯의 책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미줄에 쓰여질 문구를 구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댓가 없이는 일을 하지 않는 템플턴의 이해타산적 습성상, ‘보다 나은 먹이’라는 댓가를 위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미줄의 글자로 인하여 월버가 범상치 않은 돼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대로의 훌륭한 돼지로 성장해 가서 결국 품평회에서 상을 받게 되고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거미줄에 쓰여질 글자를 구해오는 템플턴의 역할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템플턴이 거미줄의 글자를 얻는 출처가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버린 ‘쓰레기’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품평회장예 간 템플턴은 누군가 점심도시락으로 먹다버린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신문 포장에서 거미줄을 위한 마지막 문구를 찾아낸다(139). 모두가 싫어하는 헛간사회의 가장 비천한 존재인 템플턴이 중요한 임무를 맡듯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쓰레기가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화이트는 설정하고 있다.

거미줄의 글자와 관련된 공헌 외에도 템플턴은 월버의 승리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데 공헌한다. 월버는 시상대에 도착

해서 특별상 수상을 목전에 두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죽은 돼지에겐 상을 줄 수 없다는 확정기의 음성이 들리고 월버에게 부을 물을 가지러 가는 등 시상대는 분주해진다. 그 순간 월버의 운반 상자 속에 숨어있던 템플턴이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파악하고선 물기 잘하는 자신의 습성대로 월버의 꼬리를 있는 힘껏 깨문다. 그러자 월버는 고통에 정신을 되찾아 벌떡 일어서게 되고 시상식은 다시 진행된다(159). 템플턴은 샬롯과 함께 사실상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샬롯이 알주머니를 남기고 품평회장에서 죽었을 때도 템플턴은 월버가 머물던 우리 천정에 매달려 있는 알주머니를 월버의 입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주어 주커만 농장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줌(170)으로써 샬롯의 새끼들이 월버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는데도 일조 한다. 물론 이후로 월버의 꿀꿀이죽을 먼저 먹는다는 조건 하에 한 일이지만 말이다.

템플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습성을 유지한다. 그는 이해 타산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신의 습성에 따라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포식할 수 있다는 샬롯의 말에 혹해서 월버를 따라 품평회장까지 갔던 것이고, 월버를 도와주었던 것도 겨울에 월버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월버의 먹이 구유도 텅 비게 것이고 그러면 월버의 먹이를 주식으로 삼는 자신(템플턴)의 위(stomach)도 비게 되어서 비쩍 마르게 될 것(90)이라는 늙은 양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헛간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템플턴의 습성을 이용하여 월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월버가 작품의 말미에 샬롯의 알주머니를 가져오기 위하여 템플턴과 협상하는데 성공한 것은 헛간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는 템플턴을 선한 캐릭터로 묘사하거나 이후에 선한 캐릭터로 변모하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템플턴의 좋지 않은 습성을 좋은 일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이 모두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묘사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독자들에게 함께 사는 세상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월버가 헛간사회에서 템플턴과의 협상의 기술을 익혔듯이 말이다. 이와 같이 『샬롯의 거미줄』은 모든 종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질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습성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존재의 수용의 문제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연관시킴으로써 화이트는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게 해 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먹고살기의 문제가 얽힌 현실의 세상과 죽음으로 제한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해 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유대관계이다. 유대관계란 샬롯의 월버에 대한 우정으로 구체화된다. 월버를 위한 샬롯의 우정은 일반적인 우정이 아니다. 일반적인 우정이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샬롯의 월버에 대한 우정은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성격을 띤다. 그 예로 거미줄의 글씨를 들 수 있다. 샬롯의 거미줄의 글씨는 샬롯이 먹이를 잡을 기회를 희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샬롯은 거미줄의 글씨를 쓰기 위해 “건조한 줄”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끈적끈적한 줄”로 글씨를 쓴다면 모든 벌레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글씨를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93). 샬롯의 이 이야기는 먹이를 잡으려면 끈적끈적한 줄로 거미줄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샬롯은 월버를 돕기 위하여 정성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원천인 먹이까지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샬롯은 또한 두 번째 글씨인 “빠어난”(94)을 쓸 때 “겹줄”을 이용한다. 겹줄로 글씨를 쓴다면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리라는 생각에서이다(93). 이것 역시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두 배의 노력과 시간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샬롯의

거미줄의 글씨는 샬롯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샬롯이 월버를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하면서까지 이러한 희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대화에서 샬롯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Why did you do all this for me?" he asked. "I don't deserve it. I've never done anything for you."

"You have been my friend," replied Charlotte. "That in itself is a tremendous thing. I wove my webs for you because I liked you."
(164, 필자의 강조)

“어째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거니? 나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데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고 월버가 물었다.

“너는 나의 친구잖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 나는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미줄을 짰단다.” 하고 샬롯이 대답했다.

위와 같은 샬롯의 이야기는 우정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한다. 화이트는 샬롯을 통하여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미줄의 글씨가 샬롯의 월버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Griffith, “Fantasy” 117)이듯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유대관계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화이트는 『샬롯의 거미줄』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샬롯과의 대화 이후 월버는 죽어가는 샬롯이 남기고 가는 알주머니를 자신이 돌보아 주기로 결심한다. 샬롯의 월버에 대한 우정은 월버로부터 샬롯의 새끼들에게로 다시 전승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존재의 순환을 통한 삶의 영속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게 된다. 샬롯을 통해 훌륭한 돼지

로 성장한 월버가 샬롯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로부터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작가가 성장의 최고의 단계를 조건 없는 사랑 또는 진정한 우정에 두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화이트는 이러한 유대관계를 삶에는 죽음이라는 유한성의 그림자가, 어린이 같은 순수에는 먹고사는 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경험의 세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세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제시한다. 아래의 샬롯의 말에는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After all, what's a life, anyway? We're born, we live a little while, we die. A spider's life can't help being something of a mess, with all this trapping and eating flies. By helping you, perhaps I was trying to lift up my life a trifle. Heaven knows anyone's life can stand a little of that. (164, 필자의 강조)

삶이란게 대체 뭘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잠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겠지. 거미의 삶은 덩을 놓아서 파리를 잡아먹는 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 어쨌든 난 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고양시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누구나 조금씩은 그렇게 할 수 있을거야.

어차피 짧게 살다가는 게 삶이라는 샬롯의 말은 존재의 유한성을 지적한다. 거미의 삶은 덩을 놓고 파리를 잡고 하는 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현실적 모습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월버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이 같은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샬롯의 말은 월버에 대한 자신의 우정은 결코 자신만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우정을 통해 자신 역시 행복했으며 덧없는 유한한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샬롯과 월버의 우정은 서로를 돕는 윈윈게임(win-win game)

이었던 것이다. 샬롯을 통하여 화이트는 조건 없는 사랑(우정)을 통해 유한한 삶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 대는 현실적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아동문학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김열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전달해 준다.

사람과 사람끼리 진정한 유대를 맺는 일,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 삶의 연약한 제한성, 그 허무한 유한성을 벗어날 근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화는 이야기하고 있다. (162)

샬롯은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작가”(184)였다고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샬롯을 훌륭한 작가였다고 묘사하는 것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샬롯이 생전에 쓴 글이란 거미줄에 쓴 네 개의 단어--"Some Pig", "Terrific", "Radiant", "Humble"--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가 샬롯을 훌륭한 작가로 표현한데는 이 표면적인 네 개의 단어를 넘어선 어떤 의미를 함축시키고 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열규의 주장대로 사람과 사람끼리 진정한 유대를 맺는 일을 삶의 허무한 유한성을 벗어날 근거로써 동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메시지를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헛간사회에서 전달하고 있는 샬롯은 헛간사회의 관찰자이자 아동독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편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동문학의 작가에 비유할 있을 것이다. 죽음과 현실에 관하여 샬롯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사실, 헛간 안에서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게 되는 월버보다는 헛간 밖의 세상(real world)에서 살아가야 하는 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렇게 볼 때, 헛간 안의 샬롯이 전달해주는 헛간 밖의 세상

(reality)의 진실을 깨우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편의 모습은 아동문학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잠재적 어린이독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이트는 샬롯을 통하여 어린이 독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요소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샬롯과 윌버의 접촉(contact)은 철저히 언어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John Griffith, "Fantasy" 117)는 점도 작가로서의 샬롯을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윌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story-telling), 자장가를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고, 거미줄의 글씨를 써주는 등, 샬롯과 윌버의 관계는 모두 언어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샬롯이 거미줄에 쓴 글씨는 무녀리 돼지새끼에 불과하던 윌버를 품평회장의 승리자로까지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샬롯과 그녀가 거미줄에 쓴 글씨가 윌버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래의 예문은 잘 나타내준다.

Wilbur was a pig any man would be proud of Charlotte had written the word RADIANT, and Wilbur really looked radiant as he stood in the golden sunlight. Ever since the spider had befriended him, he had done his best to live up to his reputation. When Charlotte's web said SOME PIG, Wilbur had tried hard to look like some pig. When Charlotte's web said TERRIFIC, Wilbur had tried to look terrific. And now that the web said RADIANT, he did everything possible to make himself glow. (114)

윌버는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돼지였다 샬롯이 '눈부신'이라는 단어를 써 놓았고, 윌버가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서 있어서 정말로 눈부시게 보였다. 샬롯이 친구가 된 이래로 윌버는 자신의 평판에 맞게 행동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샬롯의 거미줄에 '대단한 돼지'라고 쓰였을 때는

대단한 돼지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샬롯의 거미줄에 '빼어난'이라고 썼었을 때는 빼어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 거미줄에 '눈부신'이라고 써 있으므로 월버는 눈부시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위의 구문은 언어가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샬롯이 거미줄에 쓴 글씨대로 월버가 변화해 갔다는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어의 힘(강화)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샬롯이 거미줄에 쓴 글씨는 월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이 담긴 언어야말로 성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화이트는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샬롯을 아동문학작가에 비견했을 때, 여기서 아동문학작가를 향한 화이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글이야말로 어린이의 성장의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아동문학이 '언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아동문학이 '문학'이 되는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샬롯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봄이 오자 샬롯의 거미줄의 흔적도 말끔히 사라진다. 순환하는 자연은 새봄이 오는 소리를 알린다. 새로운 봄은 다시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다.

"Springtime." said the old sheep, thoughtfully. "Another spring." As she walked away, Wilbur saw a new lamb following her. (176)

"봄이야" 늙은 양이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또 다른 봄." 그녀가 걸어서 지나갈 때 새로 태어난 새끼 양 한 마리가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월버는 보았다.

샬롯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봄이 왔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며 윌버의 우리에는 알에서 깨어난 샬롯의 새끼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새끼들은 대대손손 윌버의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화이트는 순환하는 자연과 탄생이라는 생명의 신비를 통하여 삶의 계속성에 대한 확신을 독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커만 농장의 헛간은 그대로 남는다.

Life in the barn was very good--night and day, winter and summer, spring and fall, dull days and bright days. It was the best place to be, thought Wilbur, this warm delicious cellar, with the garrulous geese, the changing seasons, the heat of the sun, the passage of swallows, the nearness of rats, the sameness of sheep, the love of spiders, the smell of manure, and the glory of everything. (183)

헛간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 굶은 날들과 화창한 날들이 있었다. 수다스러운 거위들과, 변화하는 계절과, 여름날의 더위와, 들락거리는 제비들과, 가까이 있는 쥐들과, 한결같은 양들과, 거미들의 사랑과, 두엄 냄새와, 모든 것의 영광이 깃든 따스하고 유쾌한 헛간 아래층이 윌버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였다.

편의 잠재적 성장의 무대였던 주커만 농장의 헛간은 샬롯의 죽음과 편이 떠남 이후에도 순환하는 자연과 다양한 동물 구성원들과 두엄냄새와 함께 영원히 남는다는 결말로 화이트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헛간 사회는 현실 세계라기보다는 판타지의 세계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편이나 샬롯등 대부분의 헛간외적인 환경은 변했지만, 헛간만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변화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존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커만 농장의 헛간은 노동의 수고로움이라는 현실적 헛간의 이미지와

는 동떨어져 있으며 즐거움과 영광과 따스함으로 가득한 유토피아에 가까운 곳으로 묘사된다. 또한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월버가 살고 있다. 작가가 작품의 마지막에서 위와 같은 헛간정경의 묘사로 끝을 맺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헛간사회는 편과 같은 또 다른 어린이와 샬롯과 같은 훌륭한 작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고 모른다. 현실적 배경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판타지의 세계로 남는 헛간사회와 월버는 어찌 보면 영원히 어린이의 친구이자 성장의 장으로 남는 아동문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미셸 란즈버그는 “좋은 책은 어린이의 시야를 넓혀주며 삶의 놀랄만한 복잡성에 관한 감각을 어린이에게 불어넣어 준다.”(32)고 이야기했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책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은 보여준다. 하지만 어린이의 곁에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 책이나 아동문학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아동기를 성인과 구분지어 주는 고유한 단계로써 인식하고 어린이만의 욕구와 생각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어린이 책 시장이 활성화되고 아동문학이 많은 진보를 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은 이어지고 있다. 그 증거를 오늘날의 아동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성인작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어린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고민 없이 ‘단순한 생각을 가진 어린이’ 또는 ‘한없이 순진하기만 한 어린이’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낸 작품을 통해 어린이를 규정짓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어린이 책 시장은 어린이의 생활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책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를 단순히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존재’ 또는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어린이 책을 통해 어린이를 훈육하고자 하였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에 의해 어린이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옛이야기나 문학성을 갖춘 고전들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어린이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어린이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책으로 필자는 엘윈 브룩스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화이트는 월버와 편이라는 두 어린이 주인공을 통하여 아동기의 고민과 어린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어린이의 성장의 단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린이의 성장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부모들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죽음과 실존의 문제 등의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작품 속에는 아동문학과 어린이 독자의 관계, 아동문학 작가의 역할 등에 관한 암시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월버는 아동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가진 주인공이다. 샬롯의 거미줄의 글씨에 의해서 월버는 헛간의 자연세계에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공포는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월버가 자연을 통하여 안식을 얻는다는 의미 외에도 아동문학 작가의 소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월버로 대변되는 아동기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주려 했듯이 아동문학 작가들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어린이의 불안과 걱정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 작품 말미에 샬롯이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작가로 묘사되는 것도 이러한 암시의 하나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샬롯의 거미줄』에 나타난 성장의 특징은 '관계'를 통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편과 월버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샬롯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월버는 샬롯과의 만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대표되는 어두운 삶의 속성과도 첫 대면을 하게 되며 삶과 죽음, 먹고살기라는 삶의 현실적 문제들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월버가 겪는 삶의 실존적 문제들은 헛간 밖에서 늘 모든 헛간사회의 사건과 대화를 보고 듣는 편에 의해 목격되고 관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독자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월버의 성장은 거미줄처럼 샬롯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찰자인 편에게 확대되고 다시 어린이 독자들에게

까지 연결의 범위를 넓혀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이 월버와 편
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아동문학'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읽는 어린이 독자에 관한 이야기로 읽혀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언어'이다. 작가는 월버의
성장의 단계 단계마다 새로운 언어 습득 장면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성장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거미줄의 글씨는 월
버의 성장의 촉매제이자 동시에 성장의 내용을 이루기도 한다. 거미줄에 월
버를 수식하는 새로운 글씨가 씌어질 때마다 월버는 글씨가 의미하는 대로
의 돼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훌
륭한 돼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샬롯이 거미줄로 쓴 단어들은 월버의
삶을 고양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것은 아동문학 작가가 독자인 어린이의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언어를 통해 샬롯이 월
버를 성장시켰듯이 아동문학 작가는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아동문학을 통해 어린이독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편을 통하여 화이트는 독서와 관찰을 매개로 한 어린이독자의 내면적 성
장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품평회장소는 월버와 샬롯의 승리를 확인하
는 장소임과 동시에 헛간사회와 집을 벗어난 월버와 편이 비로소 홀로 서는
장소이다. 편은 헛간사회를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근거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헛
간에 가서 지내는 편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며
걱정하는 어머니에 대한 편이 "혼자라구요? 저의 절친한 친구들은 모두 헛
간 안에 있는 걸요. 헛간은 매우 사교적인 곳이에요. 전 전혀 외롭지 않다가
요."(107)라는 대응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편에게 있어서 헛간은 사회적인
장소였으며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편은 헛간사회를 통하여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잠재적 발판을 마

련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어린이의 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의 바탕에는 고요한 준비기가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편이 모습에서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으로 성장의 잠재적 능력을 비축하는 어린이 독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품평회장에 간 편의 변한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편은 이제 더 이상 동물들에게만 관심을 쏟는 어린이의 모습이 아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인 헨리 퍼시(Henry Fussy)와의 데이트를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143) 사춘기 소녀로서 성장한 것이다. 또한 헨리가 자신에게 공중회전차(Ferris Wheel)를 태워줬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헨리에게 공중회전차를 태워줘야 한다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는 편이 모습에서 그녀가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터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편의 성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은 이성친구에 관심을 갖게 된 사춘기 소녀로의 변신 이상의 내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편이 놀이 기구인 그네나 공중회전차 등의 이미지를 통해 화이트는 어린이의 성장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보다 큰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이 성장은 또한 순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 자연의 세계와 물질문명의 세계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도입부에서 무너리돼지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편은 헛간사회에서 살롯을 통하여 현실이란 거미줄처럼 먹고살기 위한 과정에 의하여 원치 않게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수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세상을 이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헛간이라는 자연사회에서 잠재적 성장의

12) 편이 헨리에게 보이는 관심이 '이성애적'이라는 측면에서 화이트의 결말이 보이는 '이성애적 편향'(hetero-sexual bias)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한편, 헛간사회에서 이성친구로 바뀌는 편이 관심은 정신분석학의 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s theory)에서 말하는 '전환적 공간 또는 사물'(transitional space or object)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을 쌓았던 편은 그녀의 명시적 성장을 보여준 품평회장에서 공중회전차가 있는 놀이마당으로 달려간다. 이것은 성장해감에 따라 자연보다는 물질문명의 세계와 가까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자연이 편을 잠재적 성장의 기반이 되어 주었듯이 인간의 성장을 자연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림으로써 화이트는 물질문명을 배척하기보다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과정으로 만들고 있다.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는 월버의 성장과정에도 나타난다. 월버의 성장의 매개체가 되어준 거미줄의 글씨는 헛간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 템플턴이 문명의 잡동사니가 내버려져 있는 쓰레기더미를 헤맨 끝에 현대 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고문안과 신문글귀에서 따온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죽음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알아야 할 인생의 대표적 실존적 문제이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샬롯의 거미줄』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또는 ‘삶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죽음을 삶과 유리된 어떤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분법적 구분 대신에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연속선상에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죽음을 자연의 순환과 연계시켜 설명함으로써 유한한 삶을 무한한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죽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죽음으로 한정 지워진 유한한 삶을 유대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하다. 유대관계란 월버에 대한 샬롯의 우정으로 구체화되는데 샬롯의 우정은 상호 주고받는 우정이 아닌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에 가깝다. 이것은 화이트가 나타내고자 한 진실한 우정의 모습이며, 대부분의 아동문학에서 유한한 삶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샬롯은 이러한 사랑 또는 진실한 우정을 통해

실존적 존재조건과 방식에 의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조건 없는 사랑을 삶과 죽음, 현실의 문제 등으로 얼룩질 수 있는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모티브로 화이트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작품의 말미에 월버가 계승하게 함으로써 화이트는 성장의 최고 단계를 사랑에서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편과 샬롯은 떠났지만 헛간사회는 월버와 함께 영원히 존속된다. 이것은 어쩌면 현실의 아동기 속에서 영원히 어린이의 친구이자 성장의 교사로 남는 아동문학의 영원성을 상징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 “어린이의 시간과 공간: 순응인가, 아니면 생성적 변화인가?” 『문화과학』 2000년 봄호.
- 김열규. 『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읽어 주세요』. 서울: 춘추사, 1993.
- 김자연.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서울: 청동거울, 2003.
- 김환희. “문학으로서의 어린이 문학.” 『아동문학의 특성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최 추계학술대회, 2003년 11월 10일 (미발행 발표 논문집)
- 나가이 히토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철학하기』. 김철수 역. 강릉: 도서출판 길, 2001.
- 노들먼, 페리.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김서정 역. 서울: 시공 주니어, 2001.
- 뇌스틀링거, 크리스티네. “아동문학은 문학인가.” 『창비 어린이』 창간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3.
- 니콜라예바, 마리아. 『용의 아이들』. 김서정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베텔하임, 브루노. 『옛 이야기의 매력』. 김옥순, 주옥 역. 서울: 시공주니어, 2003.
- 아리에스, 필리프. 『아동의 탄생』. 문지영 역. 서울: 새물결, 2003.
- 조운신. “검열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On line Available at <http://www.bookoo.co.kr>
- Agosta, Lucien L. *E. B. White: The Children's Books*.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95.
- Alberghene, Janice M. "Writing in *Charlotte's Web*."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16 (1985)

- Alderson, J. C. & Short, M. "Reading Literature." *Reading Analysing and Teaching Literature*. Ed. M. Short. London: Longman, 1989.
- Avery, Gillian. "A Sense of Audience - 2." *Writers, Critics, and Children: Articles from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Ed. G. Fox.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76.
- Babbitt, Natalie. "Happy endings? Of Course, and Also Joy." *Children and Literature: Views and Reviews*. Ed. V. Haviland. London: Bodley Head, 1973.
- Brief, Jean-Claude. *Beyond Piaget: A philosophical psychology*. New York: Teachers College, 1983.
- Chodorow, Nan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Davies, Bronwyn. *Frogs and Feminist Tales: Preschool Children and Gender*. Sydney: Allen and Unwin, 1989.
- Egoff, Sheila. "Inside and Out: a Canadian's View of Trends in Contemporary Children's Literature." *A Track to Unknown Water: Proceedings of the Second Pacific Rim Conference on Children's Literature*. Ed. S. Le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7.
- Elledge, Scott. *E. B. White: A Biography*. New York: W. W. Norton, 1984.
- Griffith, John W. "Charlotte's Web: A Lonely Fantasy of Love." *Children's Literature*. 8 (1980).
- . *Charlotte's Web: A Pig's Salva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 Grimm, Brothers. *Little Red Cap*. Ed. Evalyn Kinkead. New York: McGraw-Hill, 1965.
- Gubar, Marah. "Species Trouble: The Abjection of Adolescence in E. B. White's *Stuart Little*." *The Lion and the Unicorn* 27 (2003).

- Haviland, Virginia. *Children and Literature: Views and Reviews*. London: Bodley Head, 1973.
- Hunt, Peter. "Introduction: The World of Children's Literature Studies." *Understanding Children's Literature*. Ed. P. H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Landes, Sonia. "E. B. White's *Charlotte's Web*: Caught in the Web," *Reflections on the Best in Children's Literature* 1 (1985).
- Lansberg, Michele. *Reading for the Love of It: Best Books for Young Readers*. New York: Prentice-Hall, 1987.
- Lesnik-Oberstein, Karĳin. *Children's Literature: criticism and the fictional chi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 "Essentials: What is Children's Literature? What is childhood?" *Understanding Children's Literature*. Ed. P. H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McDowell, Myles. "Fiction for children and adults: some essential difference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10 (1973).
- McMichael, George.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2 (1980).
- Misheff, Sue. "Beneath the Web and Over the Stream: The Search for Safe Places in *Charlotte's Web* and *Bridge to Terabithia*."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29 (1998).
- Perrault, Charles. *Little Red Riding Hood*. London: Collins, 1968.
- Ray, Sheila. "The world of children's literature: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Companion Encyclopedia of Children's Literature*. Ed. P. Hunt. London: Routledge, 1996.
- Rose, Jacqueline. *The Case of Peter Pan or: The Impossibility of Children's Fiction*. London: Macmillan, 1984.

- Rollin, Lu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in *Charlotte's Web*." *Children's Literature* 18 (1990).
- Sampson, Edward C. *E. B. White*.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74.
- Sarland, Charles. "The Impossibility of Innocence: Ideology, Politics, and Children's Literature." *Understanding Children's Literature*. Ed. P. H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Shavit, Zohar. *Poetics of Children's Literature*.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6.
- Townsend, John Rowe. "Standards of criticism for children's literature." *The Signal Approach to Children's Books*. Ed. N. Chambers. London: Kestrel Books, 1980.
- Updike, John. "Magnum Opus." *New Yorker* 75:18 (1999).
- Wall, Babara. *The Narrator's Voice: The Dilemma of Children's Fiction*. London: Macmillan, 1991.
- West, Mark. *Trust Your Children, Voices Against Censorship in Children's Literature*. New York: Neal-Schuman, 1996.
- . "Censorship." *International Companion Encyclopedia of Children's Literature*. Ed. P. Hunt. London: Routledge, 1995.
- Westine, Boel. *Children's Literature in Sweden*. Trans. S. Croall. Stockholm: The Swedish Institute, 1991.
- White, Elwyn Brooks. "A Boy I Knew." *Reader's Digest* (June 1940).
- . *Charlotte's Web*.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1980.
- . *Letters of E. B. White*. Ed. D. L. Guth. New York: Harper & Row, 1976.

ABSTRACT

Children's Literature and Children's Growth: E. B. White's *Charlotte's Web*

Lee, Young Rim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notion of a child has been changing and evolving since the 17th century when childhood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but still immature period. Underneath the notion of a child as an immature being lies the consciousness of domination of adults who, because they look upon childhood as the preparatory stage for becoming an adult rather than an independent period in which a child has his/her own unique world, want to discipline a child so that he/she can be silently incorporated into the society built by the adults. Writers of children's literature, too, play their role in conveying the distorted conception of children by presenting an imaginary image of children they made for their literary works. In view of the fact that all stages in life have their own respective completeness, a child can never be regarded as an immature being.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are constant changes and growth however, we should also note that limiting a child to a single image such as a pure child or a good child disregards the growth of a chil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iction in 20th century has been anchored on this controversial notion of

childhood.

In *Charlotte's Web*, E. B. White not only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whether a child is really immature as compared to an adult, but also depicts the growth of a child in realistic manner. In this story nature is portrayed as more valuable than civilization to the growth of a child. Through Fern communicating with the natural world, the author tries to deliver the message that the ability of a child experiencing a mental relationship with nature is superior to that of an adult who, tamed by the civilized society, cannot discern the true value of nature. White, however, is careful not to portray Fern as one living only in a world of purity. The barnyard society connects the world of a child to that of an adult. By means of Charlotte's web, Fern observes and vicariously experiences the world of life and death in the barnyard society where life is comprised of eating and being eaten. Through her love for Wilbur, Charlotte presents a way to overcome the limits of life destined to be tarnished. Growing up with the truth of the spider's web, Fern comes to understand the world of her father, that is, the world of an adult, and thus takes her first step toward that world.

By linking the two worlds--the fantasy world and the world outside of the barnyard--and allowing Fern shuttling between these two worlds, White is able to represent the complexity of life in a roundabout and perceptive way. It is for this reason that Fern's growth through the barnyard society can be construed as symbolizing the growth of a child through reading children's literature. Fern grows up and leaves the barnyard, but the fantasy world of the barnyard would last forever and prove its power of nurturing children's imagination.